

배려·정직·겸손·유머... '좋은 설교' 위한 목사의 자세

제 3회 남가주신학대 연합 설교 페스티벌

남가주 신학대학교들이 연합해 설교 페스티벌을 10일(토)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남가주새누리교회(박성근 목사)에서 개최했다.

미주성서화운동본부 주최로 올해 3회째 열린 이 행사는 건전한 설교 문화를 정착시키고 말씀으로 돌아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열렸으며, 차세대 지도자로서 장차 이민교회와 세계 선교현장에서 사역할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다.

행사는 1부 예배, 2부 설교 페스티벌, 3부 평가 및 시상 순서로 진행됐다. 설교 페스티벌은 두시간 반여 동안 이어졌으며, 9명의 설교자들이 참석해 그간 준비한 말씀을 강단에서 자유롭게 선포했다.

이날 전달상은 국제개혁대학교의 김선경 전도사와 미주감리교신학대학교의 박윤주 전도사가, 설교주해상은 베데스다대학교의 엔젤라 리 전도사가, 최우수상에는 클레어몬트신학대학원의 민학기 전도사가,



남가주 신학대학교들이 연합해 설교 페스티벌을 1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남가주새누리교회에서 개최했다.

대상은 미성대학교의 이달란 전도사가, 그리고 참가자들에게도 참가상이 각각 수상됐다.

설교 대상은 2000불, 설교상 1500불, 설교주해상 1500불, 커뮤니케이션상 1000불, 참가상 200불이 참가자들에게 장학금 형식으로 전달됐다.

심사평을 한 김낙중 교수(클레어몬트신학대학)는 "설교를 할 때 첫 번째 청중에 대한 '배려'가 중요하기

때문에, 단어 선택을 잘해야 한다. 두 번째는 '정직성'으로 하나님과 본문, 그리고 설교자인 자신 앞에서 정직하지 잘 봐야 한다. 또 '겸손함'을 들 수 있는데, 마치 설교자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말하게 됨으로, 겸손에서 이탈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유념해야 하며, '유머'가 있을 때 설교가 더 풍성해질 수 있다"고 했다.

또 김 교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로그스'로, 내가 본문을 잘 이해해야 한다. 그럴 때 청중을 잘 이해시킬 수 있다. 두 번째는 '파토스'로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기에 노력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에 꼭 잡겨서 설교할 때 청중에게 메시지가 잘 전달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는 '에토스'로 청중들은 설교자의 삶을 알지 못한다. 어떻게 살아 왔는지에 따라서 그것이 설

교 메시지가 될 수 있고, 그것이 그대로 전달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며 "메시지를 삶에 적용하는 부분이 좀 결여돼 있어서 아쉬움이 있었다. 그런 부분이 좀 설교에 보충이 되었으면 좋겠으며, 교회 사람들만 이해하는 단어만 사용하는 것보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현대인들도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선택하면 좋겠다"고 심사평을 내렸다.

설교 페스티벌에 참여한 남가주 신학교들은 국제개혁대학교, 미주성결교신학대, 미주감리교신학대, 미주장로회신학대, 에반겔리아복음대학교, 월드미션대학교, 풀러신학교, 클레어몬트신학대 등이다.

이날 설교 주제는 '한인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넘어 차세대를 향한 계획'으로, 본문으로 에스겔 37:15-22, 이사야 60:1-3, 에베소 2:12-22, 누가복음 23:26-69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설교자들이 15여분간 설교를 했다. 심사 기준으로는 전달력과 열정, 정확한 본문주해, 설교 구성, 종교개혁적 전통과 유산의 이민교회 현장의 적용성 등 각각 25점씩 총 100점 만점으로 심사가 진행됐다.

토마스 맹 기자

특별기고

웨스트힐장로교회, 화재속에 경험한 '세가지 기적'

웨스트힐장로교회 오명환 목사 첫번째 기적

지난주 목요일 (11월 8일) 오후, 남부 캘리포니아 벤투라 카운티와 엘에이 카운티 서쪽 부근에서 화재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속 100km로 시시각각 방향을 바꾸며 불어오는 광풍으로 인해, 화재는 싸우전 옥스, 뉴베리 파크, 옥스나드, 카마리요, 시미 밸리, 아고라 힐스, 도스 비엔 토스, 오크 파크, 웨스트레이크, 칼라바사, 말리부 등지로 삼시간에 퍼져 나갔고, 약 30만명의 사람들이 강제퇴거명령(mandatory evacuation order)에 따라 집을 떠나 대피

하였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열거된 이 도시들은 제가 섬기고 있는 '웨스트힐 장로교회' 성도들의 삶터요 일터입니다. 그 날 저녁 강제퇴거명령이 떨어지게 되면서, 가정에 있던 아내들은 집도 제대로 못 챙긴 채 마치 전쟁통에 피난 떠나듯 급하게 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주변의 고속도로들과 지역도로들이 화재로 인해 통제되고 수 많은 차량 행렬로 도로는 인산인해가 되어, 직장에 출근했던 남편들을 만나지 못한 채 밤 10시가 훌쩍 넘고 자정이 가까운 시간이 되어서야 가까스로 지친 몸과 마음으로 가족들과 만나 낯선 곳에

서 일단 숙소를 잡고 그 날 밤을 뜬 눈으로 보낸 가정들이 많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금요일 (11월 9일) 화재상황은 더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광풍으로 인하여 불덩어리가 마치 화염폭탄처럼 공중으로 날아가 또 다른 지역들에 떨어져 불이 옮겨붙기 시작하더니, 오전 11시경 '웨스트힐 장로교회'와 근접해 있는 '벨 캐년'이라는 산지에까지 불덩어리가 불었고,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산 능선을 따라 불이 활활 타오르는 장면이 제 교회 사무실 창밖으로 대낮에도 훤히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 13면에 이어서



ABC7 뉴스 생방송 화면 11월 11일 주일 1부 예배 후 모습. 이로부터 30~40분 후인 2부 예배가 시작될 무렵 화재가 완전히 진압됐다.

Spectrum BUSINESS | **TIME WARNER CABLE**

교회, 사업체에서 한국과 같은 초고속 인터넷 속도를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스펙트럼에서 획기적인 속도와 가격으로 고객 여러분을 모십니다.

Sale
 인터넷 100Mb + 미국, 캐나다 무제한 전화
\$74.98 a month
 NO Contract!
 인터넷 200Mb/300Mb 한달도 가능합니다.
 타 회사 위약금 발생시 최대 \$500까지 보상합니다.

Sang Park | T. (562) 916-5191
 (한인 매니저) | Sang.park@charter.com

그린카피어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킹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한 혜택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FATHER'S TABLE CHURCH
 내 집은 만민이 금식 기도하는 집입니다

- 주일예배 : 오전 6:00 / 11:00
- 새벽예배 : 월~토 오전 5:30
- 수요일예배 : 오후 5:30
- 금요일예배 : 오후 5:30
- 찬양 & 부흥예배 : 월/화/목/토 오후 5:30

3210 W. Olympic Blvd., CA, LA 90006
 TEL : (213) 364-7289, (213) 605-1983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 학위과정: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 기독교교육학석사(MAEL), 선교학석사(MMISS)
- 위치: LOS ANGELES CAMPUS, GATEWAY SEMINARY
 게이트웨이신학교 본교 (3210 E. Guasti Rd, Ontario, CA 91761-8642)
- 등록마감일: 12월 15일 (예비지원서 [PRE-APPLICATION]은 11월 1일)

> 한영 이중언어과정은

- 미래 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 본 과정은 주로 한국어로 진행되지만,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MORE INFORMATION: 909-687-1649 EXT.1320 KEB@GS.EDU
 OR VISIT : www.gs.edu/keb

한인기독교상담소 칼럼

치매와 그 예방법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수록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기억력도 감퇴한다. 인지능력의 저하와 기억력의 감퇴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지만, 이것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일어나기 시작하면, 치매의 초기증상일 수도 있다.



송 조 이 상담원
한인기독교상담소

공급되지 않아 발생한다. 흔히 중풍을 앓고 난 후 갑자기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이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파킨슨병: 몸이 뻣뻣해지고 우울증을 동반

셋째로, 종종걸음, 굽은 자세, 손떨림이나 몸이 뻣뻣해지는 증상을 보인다면, 뇌의 흑색질이 손상되는 파킨슨병 치매 (Parkinson's disease)의 초기증상을 의심해야 한다. 파킨슨병의 증상은 다시 말하면, 경직, 근육의 떨림, 느린 움직임, 부정확한 조준,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인 활동을 잘 개시하지 못하고, 공간적인 혼미를 보이는 것 등이다. 대부분 환자는 발병 초기에 우울해지는데, 우울증은 단지 이 병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병의 일부일 수도 있다.

결국, 치매는 우리 몸의 CEO라고 할 수 있는 뇌 손상의 결과로 생기는 질병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뇌가 건강할까? 그것은 뇌의 활동을 돕는 생활습관을 갖는 것이다. 즉, 치매는 생활습관병이기 때문에, 자신이 평상시에 어떤 생활습관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노후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고 생각하면 된다.

치매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

그렇다면 치매 예방을 위한 뇌의 활동을 돕는 생활습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첫째는 계속해서 뇌를 새롭게 자극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다양한 취미 활동을 하거나, 다양한 종류의 책을 읽는다든지, 평소 애 보지 않던 장소를 방문해 보는 것이다. 그리고, 자주 사용하지 않는 손을 사용하는 것

들이 있다.

요즘 크리스천 가운데 성경 쓰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 역시 좋은 방법이다. 나이 들어 글을 쓰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러나 펜을 잡고 성경을 한 자 한 자 써가는 것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힘을 갖는 시간이 된다. 활동 시간은 최대 20~30분을 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리고 소리 내어 기도하고 성경을 읽거나, 노래나 찬송가를 부르는 것도 좋으며, QT 모임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것도 매우 유익하다.

둘째는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인데, 주 3회 이상 매회 30분~60분씩 걷기, 라인댄스, 태극권, 탁구, 게이 트볼 등을 하는 것이다.

셋째는 건강한 음식의 섭취이다. 강황, 잭프, 올리브유, 오메가3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등 푸른 생선과 해산물, 우유, 아자유, 홍삼, 콩류, 견과류, 시금치, 브로콜리, 녹차, 과일(사과, 딸기류) 등을 신경 써서 섭취하도록 하자.

그리고 보면, 치매는 뇌를 활성화하지 않고 멍하니 있는 사람을 가장 좋아한다. 치매와 친해지고 싶다면, 집안에서 텔레비전을 열심히 보면 된다.

그러나 치매와 친해지고 싶지 않다면, 열심히 활동해야 한다. 즉, 뇌를 자주만 자극하는 것이 치매 예방의 가장 좋은 방법이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건강한 생활습관을 통해,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되고 풍성한 노후를 만들어 가기를 힘써보자.

"의인들은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자랄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긴 사람들이니,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번성할 것입니다. 그들은 노년에도 여전히 열매를 맺고 진액이 가득하고 싱싱할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한 분입니다. 그분은 내 바위 시니, 그분 안에는 악함이라곤 없다는 것을 나타낼 것입니다"(시편 92:12-15, 우리말 성경).

문의) 한인기독교상담소 (kaccla.net)
전화) 213-738-6930 (LA) 657-529-1133 (OC)

'다름'에 대한 패러다임 바뀌어야 창조적 목회 할 수 있어'
미드웨스턴 이동원 목사 세미나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교 특훈교수인 이동원 목사가 박사과정 공개 세미나에 강사로 서 '목회 사역론'에 대해 전했다.

"2008년 노스 캐롤라이나 샬럿(빌리 그레이엄의 고향)에서 집회차 방문했을 때, 마침 그곳에 '빌리 그레이엄 라이브러리'가 있어 방문했다. 외양간 형태의 소박한 건물이 있었고 그가 순회설교를 한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안내하는 분을 따라서 빌리 그레이엄과 그의 부인 루스 그레이엄의 비석이 있는 곳으로 나갔다. 비석 앞에 서는 순간 굉장히 놀랐다.

루스 그레이엄의 묘비 맨 위에는 울을 의(義)자가 세겨져 있었다. 중국의 의료 선교사였던 아버지를 따라 중국에서 성장해 한자를 잘알았는데 '나아(我)'와 '양양(羊)'으로 만들어진 이 글자를 좋아해 벽에도 붙여 놓았다고 한다.

맨 아래 글자를 보고 굉장히 놀랐다. "End of construction. Thank for your patience."

어느날 루스 여사가 남편과 함께 차를 타고 공사장 옆을 지나가는데, 그동안 붙어 있던 '공사중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라는 팻말 대신 새로운 팻말 '공사 끝,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바뀌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한다. 그것을 본 루스 여사는 남편을 보며 '내가 당신보다 먼저 죽으면 저 문구를 내 묘비에 써주세요'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모든 인간과의 관계는 여전히 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다. 우리의 공사가 끝나는 날이 온다. 주님 다시 오는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때 우리는 모두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공사 끝,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

리는 '곧 공사가 끝날 것입니다. 그때 까지만 참아 주십시오'라고 말해야 한다."

11월 9일(금) 오전 10시 토론토 조은교회에서 미드웨스턴침례신학대학교 박사과정 공개세미나가 진행됐다.

미드웨스턴 수석부총장 제이슨 듀징(Jason G. Duesing) 교수가 "미드웨스턴의 주임부는 '교회를 위하여'라는 비전에 있다"며 "특별히 지역교회를 섬기기 위해 존재한다"고 말했다.

세미나의 강사로 선 이동원 목사는 자신이 목회에서 유용하게 사용한 도구인 "기질 테스트"를 통해 강의를 이끌었다. 그는 사도행전 6장 1-7절과 로마서 12장을 본문으로 초대교회가 어떻게 갈등을 극복해 더 큰 부흥을 경험할 수 있었는지 전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을 많이 한다. 그러나 초대교회가 전혀 결함이 없고 완벽한 교회였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갈등으로 시작한다. 파벌이 있고 원망이 싹텄다. 결코 완벽한 교회가 아니었다. 그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나? 갈등, 파벌로 시작했지만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이 왕성해졌다. 결코 이 갈등이 초대교회를 주저 앉히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목회 경험을 되돌아보며, 목회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은사의 차이와 기질의 차이로 인한 갈등'을 지적했다.

14면에서 계속

Christian Healthcare Ministries
오바마케어 승인 프로그램
크리스천 헬스케어
* 연중 아무때나 가입이 가능.
* 골드 프로그램은 본인부담금(\$500)을 지불하지 않음
www.chman.org 714.738.1234

SAS 인가컨설팅, Inc
www.saseducation.weebly.com
실무 10년의 노하우
대표 Paul Kim, Ph. D
Tel : (213)531-7215, (909)993-3028
2975 Wilshire Blvd, Suite B01, Los Angeles, CA 90010

OC 우리교회
Thanks Giving Sunday
2018년 추수감사예배
2018년 11월 18일 (주) 12:15
추수감사주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시 107:1)
Give thanks to the LORD, for He is good; His love endures forever,
OC 우리교회는 예진교회와 요바린다장로교회가 연합하여 새롭게 출발한 교회입니다!
4221 Rose Drive, Yorba Linda, CA 92886
www.Uri.Church
(714) 481-0191

두 교회 통합으로 'OC우리교회' 탄생

“예배, 훈련, 섬김, 선교 통해 교회 세워나갈 것”



OC우리교회가 새출발을 알리는 예배를 11일 오후 5시에 드렸다.

OC우리교회가 탄생했다. 예진교회와 요바리다장로교회가 통합해 새출발을 알리는 예배를 11일 오후 5시에 드렸다.

이 교회는 김민재 목사와 임현중 목사가 공동으로 담임 목회를 하게 되었으며, 지금까지 10주 동안 연합으로 예배를 드려왔다.

이날 '우리교회'란 제목으로 설교한 다니엘 뉴먼 목사(아주사신학교 교수)는 "우리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시고 무한하신 분이시다. 이 하나님을 알만, 자연계시를 통해 배울 수 있고, 특별계시인 말씀과 진리로 나타내신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반석이자 모퉁이돌이시다"고 했다. 그러

면서 그는 "교회 안에서 내 뜻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중심으로 하나 되는 우리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교회소개를 한 김민재 목사는 "두 분이 기도 중에 교회를 통합하기로 결정했다. 저는 행정, 세계선교, 예배를 담당하게 됐으며, 임현중 목사님은 목양과 전도, 교육과 제자훈련을 맡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임현중 목사는 "우리교회 첫 번째 사명은 '예배'이다. 하나 되어 예배드리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 두번째 사명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훈련공동체'이다. 성도들에게 무질서한 세상의 허무한 원리를 따라가는데 익숙해진 몸에 제동을 걸고 그

리스도인으로 삶의 태도를 회복하며 참된 기쁨을 얻도록 도울 것이다. 세 번째 사명은 섬김을 통해 사람을 세우는 일을 목표로 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선교를 통해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우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영상으로 축사를 한 최병수 목사는 "OC우리교회에 수년 내에 부흥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길 기도한다"고 말했다. 예배에서는 청소년부의 응답 찬양과 어린이부의 찬양 율동으로 은혜를 더했다. OC우리교회의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살전 1:3)'이다. 토마스 맹 기자

제4차 아메리카한인연합재단, 다채로운 행사로 열려



아메리카한인연합재단 전국대회가 17일까지 열린다.

제4차 아메리카한인연합재단(총회장 이우호 목사) 전국대회가 14일부터 17일까지 부에나파르크 할러데이 인에서 개최되고 있다.

첫날 대한인국민회, 김영욱대령 연구소 방문으로 행사가 시작되었고, 14일 저녁에 총회가 개최된 가운데 전문가 은퇴자들의 연합으로 세계시니어선교센터 창립에 관한 설명회가 있었다. 주최측에 따르면 둘째 날 부에나파르크 시장초청 조찬기도회에는 30명의 재단 회원들이 참석한다. 이날 연사에 미국 대통령에 2번 출마한 전 알칸사 주지사 마이크 허커비 목사가 연설하며, 미국연방정부와 주정부를 위해 이우호 목사가 대표로 기도한다. 저년 민간에는 최석호 의원, 버지니아 시장과 임용근 의원, 조용규 의원, 이상명 총장(미주장신대), 영길 의원이 초청연사로 나선다. 특별히 이날 미주장로교신학교와 은혜한국어재단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수여되며, 트럼프대통령봉사상이 수여된다. 셋째 날 영화 국제시장에 등장했

던 흥남철수작전과 원산철수작전에 사용되었던 군함인 빅토리아호를 방문하여 한국전쟁 역사현장을 돌아 본다고 주최측은 밝혔다. 특히 이 배를 제일 마지막으로 타고 나온 조용규 의원이 자신의 경험담을 나누는 계획이다. 행사를 주관하는 이우호 회장은 "조 의원의 스토리는 청중들에게는 큰 감동을 주고, 다음 세대 젊은이들에게 큰 교훈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포럼 북한변화대비, 미주한인정치인현주소, 성경과 정치, 민주당과 공화당의 차이 등에 관하여 강연이 있으며, 마지막 날 십자가 행진으로 산기도를 하며 모든 순서를 마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아메리카한인연합재단은 3백만 아메리카한인들의 권익신장과 한미 우호 증진을 도모하며, 신앙인 정치지도자 양성과 후원을 통해 미국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로 나아가기를 도모하는 단체다. 매년 1월 13일 이후 첫 주일을 '미주한인의 날 기념주일'로 지키는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벌이고 있다.

나성한미교회, 불우이웃 돕는 '2018 Love El Monte' 개최

추수감사절 행사, 17일 오전 9시 30분부터 2시까지

나성한미교회가 27번째 이어오는 추수감사절 행사로 불우한 이웃과 어린 자녀들을 위한 '2018 Love El Monte Festival'을 17일 오전 9시 30분부터 2시까지 개최한다.

교회 관계자는 "스페인스 자매교회인 'Agua Viva Church'와 함께 이웃 500-700명을 초청해 점심

과 자녀들을 위한 게임과 선물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그리고 돌아갈 때는 온가족이 먹을 수 있도록 닭고기를 선물할 것"이라며 "지역사회에서도 El Monte 시장 등 많은 분들이 격려와 기도로 도와주고 계신다.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참여해주면 좋겠다. 협찬해주는 품목에 대

해서는 세금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릴 것이다"고 밝혔다.

나성한미교회는 설립된 지 35년이 됐으며, 지난 1987년 5월에 엘몬테시(City of El Monte)에 교회를 세웠다.

나성한미교회 주소: 2727 North Durfee Ave. El Monde CA 91722



LA남성선교합창단(단장 유창호)이 창립 10주년을 맞아 제 6회 정기연주회를 4일 오후 7시에 일서연합감리교회에서 개최했다. 이날 남성선교합창단은 총 12곡을 정제되고 섬세한 화음을 선보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 이번에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페셜이 있는 차가 무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용자가 될까?
· 어떤 해결을 한 달에 남의 드리겠습니까.
·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 둘러보시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6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현대 HYUNDAI
Puente Hills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문/사/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J.C Superstar 뮤지컬 단원모집

대상 : 초, 중, 고, 대

고문위원 : 코너스톤 교회 이종용 목사
자문위원 : SBS 생활의 달인, 꾸러기 탐구생활 이상호PD

아이비 유학 Torrance / Irvine / LA shelbykwon65@gmail.com
T. (949) 329-8222, (949) 864-9162

CARAVAN CANOPY Division of Faith

교회 이동 디스플레이 및 디자인 전문

카라반캐노피는 대형프린팅 분야에서 18년의 전문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안 수정, 로고 제작, 한글 캘리그래피 디자인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며 고성능 프린트 작업으로 최고의 만족도를 약속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모든 디스플레이 제작, 맞춤형 서비스

- 현수막 | 천막
- 접이식 배너 | 디스플레이
- 프로모션 상품
- 디자인서비스

VINYL BANNERS
2' X 5' with grommets : \$25 Plus tax if applicable
4' X 5' with grommets : \$50 Plus tax if applicable

MESH/POLY FABRIC BANNERS
2' X 5' with grommets : \$35 Plus tax if applicable
4' X 5' with grommets : \$70 Plus tax if applicable

플래그, X 배너 거치대, 벽걸이 포스터, 미디어벽, 롤업배너, 현수막

14600 Alondra Blvd. La Mirada, CA 90638 | T. 877.922.6679 | 한국어. 714.367.3046 | www.caravancanopy.com

<선교부흥을 회복하라 - 89>

우리의 미국, 다민족 예배 공동체를 향하여

필자가 이사로 섬기는 선교단체 안에는 청년 사역자들이 많다. 2017년 30세 미만의 청년들로 구성된 YGMC(young Generation mission confrence)가 산호세에서 열렸을 때 1,200여명의 청년들이 모여 3박 4일간 열정과 은혜의 집회를 가졌다. 그 청년들은 주님의 지상 대명령을 분명히 알며 삶에서 열방 선교를 실천하고 있는 사명자들이다. 그들 중에 MIT가 세워져서 매년 몇 차례씩 여러 조로 나눠 북미주 전 지역을 뱅 차량으로 돌며 다민족 교회를 찾아 예배를 드리고 선교 비전을 나누면서 동역자들을 찾는다.

MIT는 Mission Impact Team의 약자다. 지난 8월 동부 보스턴 지역의 청년들로 구성된 MIT가 서부지역을 비전투어하며 필자가 사는 사우스베이지역의 Bread of life Church를 방문했다. 6명이 팀을 이뤘는데 그들 중에 중국계, 독일계, 한국계 등이 섞여 있었다. 마침 그 교회의 저녁집회 시간이라서 그 예배에 팀원들이 참석하였다. 그 교회는 중국교회인 줄 알았는데 대만 이민자들의 교회였다. 교세가 약 1000명가량 되는 큰 교회였다. 예정에 없이 예배에 참석하여 뒷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청년들의 모습을 본 담임목사는 그들이 궁금하여 어떻게 예배를 참석하게 되었냐고 물었다. 팀원들이 대답했다. 선교비전을 나누기 위해 서부 지역을 돌며 교회들을 방문하고 있다고. 이 지역을 다니다가 저녁 예배가 있는 교회가 이 교회라서 같이 예배드리고 싶어 들어왔다고 했다. 그때 목사님이 즉석에서 그림 앞으로 나와서 짧게 여러분들이 나누고 싶은 선교비전을 한 10분정도 나누라고 시간을 주었다.

먼저 청년들이 나와 함께 찬양했고 대표가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 특히 이슬람권의 선교부흥의 때가 임하고 있음을 전하며, 우리 선교회의 다민족 예배가 미국은 물론, 중동의 이슬람권의 나



이상훈 목사
주비전교회 담임

라, 터키, 이집트, 시리아 난민교회들에서, 이라크 난민 교회들에서, 인도, 중국에서 열방구원의 비전을 함께 품은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전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Bread of life Church에도 하나님의 선교비전을 나누시고 싶으셔서 우리들을 보내셨음을 믿는다”고. “여러분의 교회와 청년들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열방에 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담대하게 선교비전을 증거했다. 그리고 자기들을 세워주신 목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내려왔다. 그 목사님과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감동을 받았다. “우리가 이슬람권 열방 구원을 위해 선교하고 싶어 기도했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었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 주셨다”고, “우리도 여러분의 선교비전에 참여하겠다”고 했다.

그렇게 MIT 들이 방문하고 간 후에 사우스베이 지역 청년들과 우리 지도자들이 그 교회와 교제하기 시작했다. 2개월 후 선교회 중국선교사였던 이여호수아 선교사가 마침 오게 되어 그 교회를 방문해서 설교했다. 필자도 같이 참여해 담임목사와 교제를 나누었다. 그래서 그 교회는 함께 이슬람권의 선교의 꿈을 꾸게 되었고 그 교회 청년들이 선교훈련에 참여하는 열매를 낳게 되었다. 그 대만 청년들은 이제 우리 선교회 안에 다민족 예배 공동체로 들어와 필리핀, 몽골, 이집트, 한국, 일본, 중국계 등이 어우러진 예배에 함께 하고 있다.

● 섬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강태광 목사

신앙인의 행복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20세기 최고의 과학자는 아인슈타인 박사라는데 동의할 것입니다.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그는 수학과 과학 분야에서 천재였습니다. 그렇다면 20세기 최고의 인문학자는 누구일까요? 저는 이태리 볼로냐 대학 교수를 지낸 움베르토 에코라고 생각합니다.

움베르토 에코는 기호학자, 철학자, 역사학자, 중세학자, 그리고 미학자입니다. 각 분야에 괄목할만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움베르토 에코는 천재로 유명합니다. 9개 국어를 능통하게 구사했고, 명예 박사학위를 40개 받았습니다. 아울러 그가 근무했던 볼로냐 대학 도서관의 모든 장서 위치를 기억했다고 전해집니다. 모두 그의 천재성을 웅변합니다.

움베르토 에코는 동화책을 제외하면 인문학 전 분야에 저작을 남겼습니다. 기호학, 철학, 역사학, 중세사 등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계의 주목을 받는 책들을 저술한 보기 드문 학자입니다만 그는 문학계에서 큰 주목을 받는 유명한 소설가입니다. 소설가로 입문 과정도 독특합니다. 우연히 출판사에서 근무하는 친구로부터 출판사에서 비소설가의 소설을 출판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소설을 집필합니다. 그는 2년 반의 집필 끝에 첫 번째 장편소설 '장미의 이름'을 발표했습니다. 이 소설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고 영화화 됩니다. 그의 문학적 천재성이 드러난 작품입니다.

소설 장미의 이름은 1327년 11월의 이탈리아 산속 외딴 수도원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살인 사건을 다룬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니다. 전직 이단 심판관이었던 영국 수도사 윌리엄은 연쇄살인사건을 수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 수도원에서 머물며 사건을 수사합니다. 영민한 윌리엄은 사건을 차근차근 풀어 갑니다. 윌리엄은 결국 호르헤라는 늙은 맹인 수도사가 저지른 살인사건이라는 것을 밝혀냅니다. 도서관장인 호르헤의 살인 방법은 기쁨의 유익을 소개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2권'의 모든 페이지에 독약을 묻혀 놓아 책장을 넘기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독약에 중독돼서 죽게 했습니다. 그 책은 양피지로 딱딱하고 두꺼워서 읽을 때 엄지와 검지에 침을 묻혀서 책장을 넘겨야 했습니다.

진리는 웃음과 같은 경박한 것으로 더럽혀지면 안 된다는 중세 교회의 가르침을 지키기 위해 호르헤는 잔인한 살인을 아무 죄책감 없이 자행했습니다. 사회의 분위기가 점차 경건함과 거리가 먼 방향으로 흘러가자 위기를 느끼고 기쁨의 유익과 웃음의 유익을 소개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제2권의 교훈을 세상 밖으로 내가지 못하게 막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진리를 지켜야 한다는 호르헤 열심은 광기로 변해 뻔뻔한 살인자가 됩니다. 경건의 배신입니다. 경건의 곡해입니다. 자신의 범죄 사실이 밝혀지자 호르헤는 그 책을 삼키려 합니다. 윌리엄이 이를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고 호르헤는 도서관을 불질러 당대 최고 도서관이었던 수도원 도서관, 그 장서들, 그리고 수도원을 불태웁니다.

방대한 자료수집과 독서로 중세를 정확하게 이해했던 움베르토 에코 박사는 '장미의 이름'을 통해 중세 교회가 가진 독선과 모순 그리고 악행들을 고발합니다. 아울러 중세 교회가 행복을 멸시한 것을 고발합니다. 중세 교회는 경건이라는 이름으로 '기쁨과 행복'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중세 교회가 행복을 죄악시한 것입니다. 종교개혁 후에도 심지어 아직까지도 교회는 행복을 멸시합니다. 신앙인의 행복을 말하면 불편해 하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그러나 성도는 행복해야 합니다. 행복이 경건입니다.

성도의 행복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에서 주님은 거듭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행복하신(기쁘신) 하나님입니다. 행복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생도 행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고 성령충만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행복합니다. 성숙한 성도는 믿음의 분량만큼 크고 풍성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CMM 기독교의료상조회, 혜택 서비스 확대해

미국에서 비싼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던 크리스천을 위해 '의료비 나눔'으로 지난 1996년에 설립된 기독교의료상조회(회장 박도원 목사, 이하 CMM)는 현재 4만여 성도들이 참여하는 의료나눔단체로 성장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지난 9일 엘에이 한인타운 JJ그랜드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 전역을 본사 직영체제로 개편해 지부의 회원 서비스 시스템을 더욱 강화된다고 CMM은 밝혔다. 지부에서는 가입상담뿐 아니라 회비 납부 관련 문의, 의료비 지원 절차, 주소 변경 등 회원에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다. 또한 회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현재 기존 회원이 새 회원을 소개할 경우, 회비 크레딧을 주는 '멤버 리퍼럴 캠페인'과 회원 사망시 평균 회비의 100배를 장례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라이프 플랜'을 시행하고 있다



기독교의료상조회 관계자들(오른쪽에서 세번째가 박도원 회장)

고 설명했다. 회장 박도원 목사는 “서로의 짐을 지라는 성경 말씀에 따라 설립된 CMM의 의료비 나눔 사업은 오바마케어 벌금 부과 여부와 상관없이, 높은 의료비로 힘들어하는 크리스천들에게 꼭 필요한 대안이다. CMM은 22년 동안 의료비 나눔 사업을 운영해 오면서 회원이 많이 증가했고 의료비 지원에 대한 노하우도 쌓여 있다. 작년 한 해 실제 지원된 의료비만도 600만 달러 이상에 달하는 등 탄탄한 재정을 기반으

로 보험은 아니지만, 보험보다 더 좋은 혜택을 나눌 수 있도록 계속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CMM은 회비 40불부터 175불까지로 일반 의료보험에 비해 저렴하지만 프로그램에 따라 다양한 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한국 등 세계 각 곳에서 발생한 의료비 지원이 가능하고, 월 175달러 회비를 내는 골드플러스 회원의 경우 1년에 500달러까지 건강검진비도 제공한다. 문의) 773-777-8889, www.cmmlogos.org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박기호, 방지각, 김중준,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만규 이사장 : 임덕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추수감사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 (시편 107:1)

LA씨티교회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오전 10:50
 평신도 리더쉽훈련 매주 수 오후 7:00
 금요 말씀과 삶 공부 오후 7:30
 토요일아침예배 오전 8:00

주소 및 전화

4322 Wilshire Blvd. #301, Los Angeles, CA 90010
 T. (323) 833-9090



씨니김 담임목사

순종을 위한 고난과 죽음의 성과

히브리서 5:5-10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본문 히브리서 5:5-10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선포하실 때에 그것을 자신의 입장과 비전, 계획은 무시하고 무조건적인 복종만을 요구한다는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현대 교인들의 생각이 바로 이런 점에 있습니다. 자신의 입장과 형편처지를 앞세워 자신의 것을 포기하거나 희생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사실을 히브리서 5:1-10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란 직책은 무엇입니까?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난 다음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시각에 눈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밤낮없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라는 하나님의 사역자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대책을 허락하시고 그 대책을 집행할 수 있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들은 회개하고 용서받기위해 소나 양, 염소, 비둘기를 준비해서 제사장에게 갖다 바치고 자기 죄를 자백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예물을 입고 가슴 흉배에다가 지금 죄를 용서받기 원하는 사람의 이름을 적고 그 밑에 그 사람이 용서받기 원하는 죄목을 썼습니다. 제사장은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죄를 용서받고자 하는 사람을 대신해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뽑아 접시에 담고 우슬초라고 하는 풀을 오른손에 쥐고 성막에 들어갑니다.

성막에 들어가면 휘장이라는 것이 있고 양쪽에 기둥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기둥을 기둥 뿔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 기둥과 기둥 사이에는 띠상이 있습니다. 그곳엔 진설병(陳設餅)이 놓여있고 그것은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양쪽의 휘장이 가려지고 진설병이 있는 부분만 보이게 되어 있고 그 바로 안쪽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에 짐승의 피를 찍어서 뿌립니다. 피를 뿌리면서 흉배에 적힌 이름과 죄목을 하나님 앞에 보고를 드리며 짐승의 피로 인하여 임시적으로 심판을 보류하기 위한 효과로 속죄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이처럼 제사장은 양떼를 대신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실 영원토록 대제사장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의 임무와 역할을 대행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제사장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모순된 제사

장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죽임 당하신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짐승을 사다가 속죄제를 드려 달라고 제사장에게 부탁할 이유가 없게 된 것은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대속의 희생양으로 자신이 흘리신 피로 아버지께서 택하시고 예수님께 맡긴 자기 양떼들의 죄를 속죄 받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신하여 제사장 노릇을 했던 사람들의 임무는 이제 끝나고 단번에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모세의 형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택하셨습니다.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곳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법궤 안에는 세 가지 상징적 물품을 간직하게 하셨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이 애굽을 출발하여 홍해를 건너던 날부터 안식일을 제외하고 날마다 내려주신 만나를 순금에 쓴 돌 항아리에 보관했고 그것은 자기 백성을 먹여 살리는 생명의 양식으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35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아론의 싹 난 지팡이이며 이것은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시내 산에서 성령의 불로 써주신 돌판입니다. 이 십계명은 성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이스라엘과 전 세계를 다스렸던 시기가 지나고 예수님이 오셔서 33년을 사셨지만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리어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리스도, 희생양으로 죽임당하시기까지의 3년 세월을 성자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 할 것을 훈련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임당하시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만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요16:7-8)”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했습니다(마 27:50-51). 그 휘장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시대 짐승의 피가 그 휘장에 뿌려질 때 그들의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 흘리실 때 까지만 심판이 보류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이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죽는 모든 사

람들에게 오로지 예수님의 피만이 하나님 앞에 영원한 속죄의 보혈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부터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진 후에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는지 생각해 봅시다.

성부, 성자, 성령이 의논하셔서 성자 예수님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 형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심으로 구약, 신약 시대의 신앙인들을 영원히 구속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스스로 영원토록 대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으셨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그 모든 계획을 이루시는 과정에 누구를 쓰시는가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되어 질 수밖에 없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으로는 하나님이시고 육체로는 사람과 똑같은 신인양성(神人兩性)을 겸비하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실 고통에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마26:42)”며 간절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죽음과 고통이 싫어서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영과 육의 갈래 속에서 육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하나님의 뜻으로 지시가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본을 남겨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운명하시기 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하셨습니

다. 마태복음 28:18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권한을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으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완전한 인격자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이런 말씀들을 남기신 이유는 모든 신앙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일들에 순종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고난과 죽임을 당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일을 당하기 위해 오신 것을 스스로 밝히셨고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기도와 눈물로 간구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이 택하신 백성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게 하고 회개하게해서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성령에 이끌리며 쓰임 받아 하늘나라 확장을 위하여 힘쓰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천국가면 훗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질 때 그 영광스런 주인공들로 참여하게 됩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 순교를 하게 된다 하더라도 예수님처럼 생명부활로 반드시 살려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지옥 같 많은 영혼을 생명 길로 이끌어 주신 그리스도 왕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를 계속 해산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도 남은 생애를 예수님과 같이 순종을 위한 고난과 죽음까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완전히 복음의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의 생명 부활로 영원히 동참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 토요일 오전 7시	목요일 낮 12시 /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40 라디오 코리아 /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 AM1310 기쁜소리방송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국 신문 설교			
기독일보	5면 설교 / 인터넷신문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 화요일 오후 7시30분 / 금요일 오후 2시30분 /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2018년에도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북한동족들을 위한 '그날까지 선교연합 (UTD-KCC Missions)' 사역에
 쉬지않는 중보기도와 정성어린 물질로 후원해주신
전 미주지역의 한인교회들과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에도 '그날까지 선교연합 (UTD-KCC Missions)'은
 북한인권운동과 통곡기도대회, 탈북자 구출과 탈북여성들을 위한 힐링캠프,
 그리고 통일 후 북한선교준비를 위한 탈북목회자 양성 사역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Happy Thanksgiving!

그날까지 선교연합 국제대표 손인식 목사

연락처 UTD-KCC 선교 행정 본부 (TEL. 949.297.3788) 24196 Alicia Parkway, Suite E, Mission Viejo, CA 92691
 이메일: utdkcc@gmail.com / 홈페이지: www.kccnk.org / 카카오톡 ID: utdkcc

1. 통곡기도회 개최를 원하시는 교회들은 UTD-KCC 선교 행정 본부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TEL. 949.297.3788)
 2.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들도 UTD-KCC 선교 행정 본부로 전화 (TEL. 949.297.3788) 주시거나 홈페이지 후원방법 안내를 참조 해 주십시오

추수감사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 (시편 107:1)

Thanks Giving



감사한인교회

예배시간 안내

- 1부예배 오전 7:30
- 2부예배 오전 9:30
- 3부예배 오전 11:30
- 한어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 금요찬양 오후 7:30
- 장애인예배 오전 11:30
-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주소 및 전화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구봉주 담임목사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

다우니제일 교회

예배시간 안내

- 1부 예배 오전 8:00
- 2부 예배 오전 11:00
- 수요예배 오후 7:30
-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30
- 주일학교 오전 11:00
-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주소 및 전화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안성복 담임목사

Thanks Giving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 (시107:1)

lafgc.com

예배시간 안내

- 1부예배 오전 7:30
- 2부예배 오전 9:30
- 3부예배 오전 11:45
- EM예배 오전 11:30
-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주소 및 전화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진유철 담임목사

동주님께
충성하는
교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께 기쁨과 영광을 드리는 교회

주님의영광교회

xe.gjc.org

예배시간 안내

-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10:30
- 3부예배 오후 1:00
- 4부예배 오후 6:00
- EM 오후 2:00
- 라티노 주일 오후 5:00
- 라티노 목요일 오후 7:00
-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
-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주소 및 전화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신승훈 담임목사

Thanks Giving



남가주 순복음 교회

예수 생명으로 열방을 살리는 예배공동체!
ALL IN JESUS 예수께 모든 것을 거는 예수공동체!



이 일 담임목사

예배시간 안내

- 주일예배 오전 11:00
- 금요일예배 저녁 8:00
-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 교회학교 주일 오전 11:00

주소 및 전화

10871 Western Ave. Stanton, CA 90680
 Tell. 714-952-0191
 Cell. 818-521-9200
 www.socalfgc.com



나성 한미 교회

복음의 본질위에서 성령이 감동하는 교회



신용함 담임목사

예배시간 안내

-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11:00
- 영어예배 오전 10:00
- 중고등부 예배 오전 10:00
- 유초등부/유치부 예배 오전 11:00
- 청년부 예배 오전 11:00
-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주소 및 전화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444-0058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송재호 담임목사

예배시간 안내

-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11:00
- EM예배 오후 1:00
-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 성경공부 오후 7:30 (화)
- 수요예배 오후 7:30
- EM성경공부 오후 7:00 (금)
- 금요성경공부 오후 7:00

주소 및 전화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D2BD 청소년 연합 겨울캠프

서북미 청소년 겨울 영어 캠프, 2018 J&I D2BD 컨퍼런스 열린다

타코마 교회연합회가 주최하는 청소년 겨울 영어 캠프, 2018 J&I D2BD 컨퍼런스가 오는 12월 26일(화)부터 28일(목)까지 5학년에서 12학년을 대상으로 타코마 중앙선교교회(담임 김삼중 목사)에서 열린다.

D2BD 청소년 겨울 영어 캠프는 청소년들의 신앙과 가치관을 확립해 밀려오는 대중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기독교 신앙관으로 세상을 선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이번 겨울 캠프는 기도와 찬양, 말씀을 통해 세상의 시련에 함께 맞설 수 있는 믿음을 형성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성서적 세계관 확립으로 크리스천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비전을 심고 있다. 캠프를 진행하는 김명신 목사는 “지난 10년 동안 캠프를 통해 많은 청소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많은 영적인 부흥과 훈련들이 있었다”며 “올해 컨퍼런스 역시 진리와 정의를 찾아 보기 어려운 혼탁한 시대에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이고, 캠프를 통해 청소년들이 정체성을 확립하고 인생의 비전을 보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목사는 또 “D2BD 캠프는 청소년들이 세상의 가치관과 성경적 가치를 비교하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성경에서 제시하게 된다”며 “캠프는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는 전도 훈련이자 학생 개인의 신앙과 교회 전체의 부흥을 가져오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2018 “D2BD” 청소년 겨울 영어 캠프 일시 : 12월 26일(화) -28일(목)
장소 : 타코마 중앙선교교회
10312 93rd Street Court Southwest Tacoma, WA 98498
문의 : 253-267-2901 iam625@gmail.com
등록비 : 80달러(12월 11일까지), 100달러(12월 12일 이후).

동지선교회, 노숙자들에게 가장 특별한 크리스마스를 전합니다

올해도 성탄절 예배와 모텔방 제공



동지선교회가 준비한 선물을 나누며 기뻐하는 동지선교회 임원들과 노숙자들

미국 워싱턴주에서 노숙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동지선교회가 올해도 어김없이 크리스마스 기간 노숙자들에게 따뜻한 식사와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한다. 노숙자들은 오는 24일(월)부터 27일(목)까지 3박 4일 동안 동지선교회가 마련한 모텔에서 성탄절을 맞게 된다.

동지선교회는 “지난 9년동안 성탄절 모텔방 사역을 통해 많은 홈리스 형제 자매들이 ‘주님의 사랑을 체험했고, 자신들에게 최고의 성탄 선물이었다’고 고백했다”며 “비록 며칠 동안의 편안함이지만 그들에게 힘이 되고 힘을 얻어서 예수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면 이것보다 값진 일이 없을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올해 역시 린우드, 에드몬드, 타코마 지역 모텔에서 노숙자에게 모텔방을 제공할 예정이며, 예년에 비해 늘어난 예산으로 더 많은 관심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실정이다.

동지선교회는 “올해 추수감사절과 성탄절에 노숙자들에게 1인당 5달러 상당의 맥도널드 기프트카드를 비롯해 울 양말, 손난로, 에너지 바 등 20달러 상당의 선물을 전할 예정”이라며 “주님의 사랑을 전할 개인이나 단체의 참여를 기다린다”고 전했다.

동지선교회는 그동안 이 땅에서 받은 축복의 일부를 우리 지역사회의 가난한 노숙자들을 위해 내어놓는 것을 목적으로 2006년 시작된 이후부터 동지 밥상을 통한 구제사역, 노숙자들에게 방 얻어주기 사역, 응급 모텔 사역 등 노숙자들이 노숙생활을 끝낼 수 있도록 자립의 기반을 마련해왔다. 또한 노숙자들의 숙식제

공분 아니라 영적 필요와 구원을 위해 예배와 성경공부, 심방, 영성 훈련,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등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동지선교회는 “지금까지 해 온 사역을 더욱 충실히 하면서 노숙자들의 교육 사역을 통해 자립의 의지를 일깨우고, 직업을 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밝혔다. 이경호 목사는 “동지선교회의 노숙자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모든 후원자들의 정성으로 가능한 일이었다”면서 “그동안 후원해 주신 교회와 기관 대표들 및 후원자들을 모시는 자리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이 목사는 동지 선교회의 사역은 더욱 값진 것은 모든 후원과 사역이 한인들의 힘으로 된 것이라고 강조하며 “동지 선교회는 이민자인 우리들이 미국과 미국사회로부터 받은 것을 되갚은 뜻 깊은 사역”이라고 덧붙였다.

동지선교회는 한인교회가 노숙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부분으로 △노숙자 저녁 식사 제공 △찬양과 예배 동참 △생활용품 지원 △슬리핑 백 기부 △노숙자 사역을 위한 헌금 △영어를 하는 2세들의 대화 상대 되어주기 등을 꼽았다.

후원의 밤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메일을 통해 후원금을 전달할 수 있다. 동지선교회는 연방정부의 501C (3)를 소지한 비영리 단체로서 후원금은 세금공제가 가능하다. 헌금 수표는 Nest Mission로 기입하면 된다.

Mailing: PO BOX 5782, Lynwood, WA 98046
Pay to : Nest Mission
문의 : 253) 732-3929 이경호 목사
206)255-0676 정득실 목사.

교회 연합 선교회

- LA 지역**
-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30
목요일 예배 오후 7:30
주중 영혼의 섬 예배 오후 7:30(월, 수, 금)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역성혁명을 통해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 영혼의 속박을 받지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245-6616
- 주일예배 오전 10:50
평신도 리더쉽훈련 매주 수 오후 7:00
금요일 말씀과 삶 공부 오후 7:30
토요일예배 오전 8:00

씨니킴 담임목사

LA씨티교회

4322 Wilshire Blvd. #301, LA, CA 90010
T. (323) 833-9090
-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절은이 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
주일예배 - 버클랜드교회(7가와 버몬트 코너) 152 N. Vermont Ave., LA, CA 90004
주중요일 - 사랑음원센터 2610 W. Olympic Blvd., LA, CA 90006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민2세를 복음화하며, 이민가정을 치유하며, 선교영광을 증축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주중연락처 T. (213) 386-2233
-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 - 토)

장태원 담임목사

LA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함, 사랑의 공동체

3407 W. 6th. #412 (6가와 카탈리나)
T. (213) 909-6473 / www.missionla.org
- Rain down 주일예배 오후 3:00
Heart of David 금요일예배 오후 8:00
Lighter 금요일예배 오후 11:00

최순환 담임목사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2975 Wilshire Blvd #415, LA, CA 90010
T. (310) 905-2228 / newchurchdtda.com
- 1부예배 오전 9:00 어린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20

한현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hurch.com
-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2부예배 오전 10:30 새벽예배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후 12:45 유초등부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2:45

강진웅 담임목사

갈보리민음교회
피난처 되시는 예수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제자들의 공동체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 주일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토) 오전 6:0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7와 Rampart Blvd 교차로 북쪽쪽 역 위치)
- 1부예배 오전 7:30 EM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3부예배 오전 11:45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새운 이룰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 1부예배 오전 7:30 성인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30 한어청년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후 1:00 찬양예배 오후 3: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박현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하나님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383-2600, (213) 383-2602 / laopendoor.org
-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6:00(토)
중고등부 EM 오전 11:00

김민수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 1부예배 오전 08:30 영어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3부예배 오후 6:00 새벽예배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지용덕 담임목사

미주양곡교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민사회와 가정을 섬기는 믿음공동체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T. (213) 380-9377, (213) 267-0030 www.churchla.org
- 주일예배 오전 9: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9:00
EM예배 오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청년부 예배 오후 1:00 목요일찬양(배배) 오후 7:30
교회학교 오전 9:00

김경철 담임목사

산타모니카한인교회
죽도록 섬기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 502-9999 / www.smkc.us
- 대예배 1부 오전 8:00 새가족 성경공부 오후 1:00
대예배 2부 오전 11:00 중보기도 (목) 오후 1:00
유년주일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 오후 7:00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정병노 담임목사

새일교회
LA Sehil Presbyterian Church

760 S. Westmoreland Ave., Los Angeles, CA 90005
Tel. (213) 384-8690, (213) 820-7240 Email: lasehil2011@gmail.com
(87와 Westmoreland 코너 First Baptist Church 옆에 있습니다)
-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예배 오전 11:0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유년부 오전 11:0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중고등부 EM 오전 12:15

정세훈 담임목사

새한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 (영광기성 7:2)

2531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6-0685 www.lasahan.com
- 1부예배 오전 9:00 청년부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0:5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영양부 유초등 오전 10:50 새벽예배 오전 5:30 (화-금)
중고등부 오전 11: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00

정인호 담임목사

예수마을교회
행복한 교회 행복한 교인

616 Shatto Pl. Los Angeles, CA 90005
T. (213) 249-9191, www.lajvc.webchurch.kr
- 1부예배 오전 7:00 중고등부 대학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0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0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유치, 유년부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곽건섭 담임목사

예은장로교회

1401 W. Washington Blvd., LA, CA 90007
T. (213) 745-9997
- 주일예배 오전 10:45 금요일예배 오후 8시
주일오후예배 오후 11:00 새벽예배 오전 5:45(월-금)
매일 밤 기도회 오후 9시

박은종 담임목사

예일한인교회
치유하는 교회, 회복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1611 Beverly Bl., Los Angeles, CA 90026
T. (213) 975-9191 www.wpcjesus.com
- 1부예배 오전 09:30 김중호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김중호 담임목사
금요기도회 오후 7:30 김중호 담임목사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김중호 담임목사

예향선교교회
복음의 향기로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

4323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281-1196 / E: isaacdeu@hotmail.com
- 주일 1부예배 (분당)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분당)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분당) 저녁 8: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리셋예배(월요일예배) (소액배설) 오전 11:0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깊은 말, 마음, 몸, 열매

302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 387-1700 C. (213) 500-4737 / olympic-church.org
- 1부예배 오전 8:00 EM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0:30 라티노 주일 오후 5:00
3부예배 오후 1:00 라티노 목요일 오후 7:00
4부예배 오후 6:0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받는 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 1부예배 오전 8:30 수요일양재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부 유아 이동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매주 화-토 오전 6:00
청년부 예배 오전 11:00

김신 담임목사

주향교회
주님을 향한 주님의 향기

3412 W. 4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 383-4951 / 4952 F. (213) 383-5085
-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토) 오전 6:30(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사역 : 유아원 사역, 후드 사역, 장학 사역, 십자가 사역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호를 소, 친 초, 정신의 호를, 바른교회인의 호를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유차부, 유초등 오전 11:0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오전 11:0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은목 담임목사

평화교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이웃사랑에 힘쓰는 교회

2538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251-9191 www.pcjcchurch

1부예배 오전 9:00 유년부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Youth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청년대학부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박효우 담임목사

풍성한 교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하며 선교하는 교회

2911 Beverly Blvd., LA, CA 90057
T. (213) 381-949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도회)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11:00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오전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 321-4433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이순환 담임목사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LA 동부, 라스베가스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7: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향한 교회를 꿈꾸는 공동체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 591-6500 sunh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령집회 오후 8: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유치부 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청년부 예배 오전 1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이희달 담임목사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토)

정동석 담임목사

나성교회

1620 N. 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T. (562) 690-7979 F. (562) 690-0038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유치부 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청년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신용환 담임목사

나성교회
복음의 본질에서 성령이 감동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주일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의 은사를 받아 함께 할아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 674-3016, cell. (562) 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1부 예배 오전 8시 2부 예배 오전 10시 45분
중보기도모임 오전 9:15-10:00(주일)
수요성경공부 오후 8시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월-금), 6시 30분(토)

장주영 담임목사

뉴스교회
새 시대를 책임지는 건강한 교회

1550 Greenbriar Ave. Corona, CA 92880
T. (951) 272-9126 / www.newsongcorona.com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조용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갈보라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1부예배 오전 8:00 Youth &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토요찬양회 오전 10:00-오후 1:00

김성수 담임목사

뮤리에타 한인장로교회
건강한 교회 성숙한 신앙

24736 Washington Avenue, Murrieta, CA 92562
T. (951) 696-1034 / www.murrietachurch.org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말씀강해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00(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명의 나눔터(매주 목) 오전 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이훈준 담임목사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 (951) 966-9191

주일예배 오전 9시 (지성전) 금요예배 오후 7:30
오전 11시 (본성전) 매일OT 월-금 오전 6: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본성전: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는 교회"

T. (760) 636-2675 / pspkcm.com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금)
EM예배 오후 1:00 EM성경공부 오후 7:00(금)
중보기도회 오전 10:30 금요성경공부 오후 7:00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밸리, 글렌데일, 파사데나

1부 예배 오전 7:00 중고등부,대학부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주중새벽기도회 오후 8:00(금)
3부 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유치,유년부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김경진 담임목사

기쁨의교회
사람을 살리고 세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교회

333 E.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T. (818) 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여호와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 882-9191 F. (818) 882-9777 www.churchmannan.com

1부 예배 오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금)
중고등부 오전 11:00 Awana 오후 8:00(금)
유년부 오전 11:00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금)
EM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방수민 담임목사

베다니한인교회
문턱없는 교회 변화하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 (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주일 2부 오전 9:30 금요영성성경회 오후 7:45
주일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젊은이예배 오후 2:00

윤대희 담임목사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 744-9191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 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성령성경회 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오명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소통하는 교회(Communicat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MP채널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8 588 Atlas Ave., Monterey Park, CA 91755
Tel. (323) 837-0900

최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중기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리시(Call),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 (818) 549-9199 / choonghyun.org

“교회법상 권징은 형벌 아닌 교훈·교정·치유”
한국교회법연구원 제13기 아카데미 개최



아카데미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교회법연구원(원장 김영훈 박사)이 12일 오후 서울 한국기독교교회관 2층 강당에서 제13기 교회법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날 아카데미 개강예배에선 김순권 장로(예장 통합 경증총회장)가 설교했고, 이후 김영훈 박사(서울대 법대, 숭실대 전 대학원장)와 안수화 장로(변호사), 조수현 목사(정보넷 대표)가 발표했다. 이어 종합토론 및 참가자들에 대한 수료증 증정을 끝으로 일정을 모두 마쳤다.

예장 통합 재판국장을 역임하기도 했던 김영훈 박사는 ‘재판국원의 자격, 재판의 주요원칙과 절차’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김 박사는 우선 교회재판에 대해 “원칙적으로 당회와 노회, 총회 재판국의 3심제로 이뤄진다”며 “교회재판은 주님의 이름과 그 직권으로만 판결하는 영적 요소가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예장 통합 재판국장을 역임하기도 했던 김영훈 박사는 “재판국원의 자격, 재판의 주요원칙과 절차”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김 박사는 우선 교회재판에 대해 “원칙적으로 당회와 노회, 총회 재판국의 3심제로 이뤄진다”며 “교회재판은 주님의 이름과 그 직권으로만 판결하는 영적 요소가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김 박사는 “교회재판은 형법 등 국가법에 의한 형법권의 행사가 아니고 신령한 교회법을 영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라며 “교회법상 권징은 성질상 형벌이 아니고 교훈·교정·치유의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올바른 교회법의 정립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재판국원의 자격에 대해 그는 “재판국원은 총회헌법 및 제규정과 신앙적 양심에 따라 재판할 수 있는 자질을

가진 자여야 한다. 즉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력과 최소한의 전문적인 법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특히 교회재판(권징)의 의의와 특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회의 법에 의한 재판의 원칙으로 △공정한 재판 △율법과 규례에 의한 재판 △증거주의 △상방청문 △과잉금지 △무죄추정 등을 꼽았다.

이어 ‘재판국(교회·노회·총회) 운영의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안수화 장로는 “사회 법정에서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단 내부의 권징 재판에 관해 원칙적으로 심사를 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재판국은 정의 관념에 부합되고 공정하게 판결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야 한다고 역설한 안 장로는 △모든 교인에게 재판을 받아 자기를 방어할 권리(변호인 선임 등)를 주고 △재판은 3심제로 진행하며 △피고인에 대해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조수현 목사는 ‘다음세대를 위한 IT기술의 활용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김진영 기자

새에덴교회 30주년은 나눔으로...
약 38억 이웃 위해



새에덴교회 설립 30주년 감사예배가 진행되고 있다.

새에덴교회(담임 소강석 목사)가 설립 30주년을 맞아 11일 저녁 ‘받은 은혜, 섬김과 나눔’이라는 제목으로 감사예배를 드렸다.

소강석 담임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새에덴교회는 하나님의 찬란한 약속으로 시작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왔다”며 “단 한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적이 없으며 성령의 부추하심이 없이 걸어진 적이 없었다”고 했다.

새에덴교회는 올해 설립 30주년을 ‘이웃들과의 나눔’으로 기념하고 있다. 이에 소 목사는 “이는 30년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요 눈물이자 기도”라며 “우리의 섬김이 한국교회의 거룩성과 영광성을 회복하는 데 한 알의 밀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왔다.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이 대독한 메시지에서도 문 대통령은 “사랑과 봉사, 섬김과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 실천하고 계신 새에덴교회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매년 한국전쟁 참전용사를 위한 감사행사를 주최하고 계신 데 대해서도 각별한 고마움을 전한다”고 했다. 이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고 덧붙였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축하

의 서한을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새에덴교회가 6.25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을 초청해 보은예배를 드릴 때도 축하 서한을 보냈었다. 이번이 두 번째. 이 서한은 김장준 전 미연방하원의원이 대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에덴교회 창립 30주년을 기념하는 모든 분들께 따뜻한 축하와 인사를 전한다”며 “얼마 전 제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5만 명의 크리스천들이 서울 올림픽 스타디움에 모여 저와 미국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기도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다. 그 거대한 기도 운동을 조직하고 후원하면서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소강석 목사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예배 후 진행된 2부 섬김과 나눔 순서에선 구제와 장학, 선교 등을 위해 각 단체와 기관에 헌금을 전달하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약 38억이나 되는 큰 돈이었다.

3부 축하와 격려 순서에선 백근기 용인 시장을 비롯해 김중준 목사(예장 합동 부총회장), 김경진 장로(전 논림부장관), 장충식 장로(단국대 이사장) 등이 축하와 격려사를 전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영훈(여의도순복음교회)·장종현(백석대 총장) 목사는 영상으로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김진영 기자



©FACEBOOK/CHRIST UNITED - MYRTLE BEACH

미국 대형교회, 동성애 입장 차이로 UMC 탈퇴 선언

“우리 교회는 비난하지도 용납하지도 않을 것”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에 위치한 한 대형교회가 동성애 문제로 인해 연합 감리교회(the United Methodist Church; UMC)를 떠나기로 했다.

6일(현지시간)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1천 6백여 명의 교인이 등록한 머틀 비치의 그리스도 연합 감리교회(Christ United Methodist Church of Myrtle Beach)는 사우스 캐롤라이나 연례 총회에 교단을 떠날 것이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이 교회의 UMC 교단 탈퇴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교회는 이미 웹사이트와 소셜 미디어 계정 등에 변경된 교회 이름인 '크라이스트 유나이티드(Christ United)'를 사용하고 있다. 이 교회의 제프던(Jeff Dunn) 목사는 지난주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교회가 동성애자들을 피하거나 혹은 동성애

자들을 환영하고 수용한다는 인상을 주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우리 교회는 비난하지도 묵과하지도 않았다. 우리는 결코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끼게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선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는 특히 동성애자들을 사랑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UMC는 내년 2월 동성애와 동성 결혼에 대한 공식 입장을 유지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특별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던 목사는 교단을 탈퇴하는 이유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동성애를) 비난하거나 혹은 용납하는데 연관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논쟁에서 멀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미경 기자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해임에 대한 기독교 지도자들 반응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CNN화면캡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간 선거가 끝나자마자 제프 세션스(Jeff Sessions·71) 법무장관을 해임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9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오후 트위터에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의 공로에 감사하며 그가 잘 지내길 바란다”는 글을 올리며 해임 소식을 전했다.

이에 세션스 장관은 대통령에게 제출한 한장 짜리 서한에서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사임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법무장관으로 일한 것은 영광이었다. 법치에 기반하여 법집행 어젠다를 시행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 세션스 장관은 지난 2016년 대선 과정에서 당시 상원 의원 중 최초로 트럼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대선캠프에 참여한 핵심 측근이었다. 그러나 대선 기간 세르게이 키슬랴크 당시 주미 러시아대사를 최소한 차례 이상 만난 사실이 폭로되자 러시아 스캔들 관련 수사 지휘에서 손을 뺐고 이후부터 트럼프 대통령과 멀어졌다.

세션스 법무장관의 해임 소식이 전해

지자 보수 기독교 지도자들은 안타까움과 함께 후임 장관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마이크 허커비(Mike Huckabee) 전 아칸소 주지사는 자신의 트위터에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의 기용 당시 그를 반대하던 민주당 지지자들이 현재는 태도가 바뀌어 그를 지지하며 정부를 비판하는 모습이 위선적이라고 지적했다.

가족연구위원회 토니 퍼킨스(Tony Perkins) 회장은 “세션스 법무장관은 종교 자유를 수호해 온 친구이자 협력자였다”라고 평가했다. 퍼킨스 회장은 “세션스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종교 자유에 관한 행정 명령을 뿌리내리게 한 그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후임 장관 역시 미국 내 종교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온전히 기대한다”고 전했다. 반면 복음주의자인 조니 무어(Johnie Moore) 목사는 “세션스 법무장관의 불법 이민자들에게 대한 강한 적대감과 불법 이민을 다루는데 있어서 그가 지지하는 전략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온건한 복음주의자들을 불쾌하게 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혜진 기자

미국 중간선거에서 최초로 무슬림 여성 2명 당선

이번 미국 중간선거에서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후보들의 당선 소식이 많았다. 특히 소말리아 난민 여성과 팔레스타인 이민자의 딸로 자란 여성이 무슬림으로서 최초로 당선됐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반대하며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일한 오마르(Illhan Omar·37)와 라시다 탈리브(Rashida Tlaib·42)는 무슬림 여성으로서 미국 첫 연방 하원의원이 됐다. 오마르는 민주당

강세 지역인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미국인 최초 무슬림 의원이 된 전임자 키스 엘리스(Kiss Alison)이 미네소타 연방 검찰총장에 출마하기로 결정하면서 그 뒤를 이었다.

또 다른 당선자인 탈리브는 미시간 주 13선거구에 단독으로 나서 사실상 당선을 미리 확정지었다. 그녀는 성추문으로 물러난 민주당 존 코너저스 의원 대신 출마해 88.18%의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

사우스베이, 토렌스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유중등부 예배 오전 8:40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 EM Bible Study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2부예배(EM) 오후 11:00

이석부 담임목사

나성금란교회

기본으로 돌아가는 교회 (계 2:5)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30 한양장년부 오후 2:15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6:00

김준식 담임목사

남가주샬롬교회

복음과 사랑을 전파하는 교회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 (310)787-1004 shalomch.org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 9:30/2부 11:00
2부예배 오전 9:30 중/고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4부(젊은이예배) 오후 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파송기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s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후 1:0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세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라(골 10:15)

이호우 담임목사

좋은소식교회

Good News Church

15435 S. Western Ave. #200, Gardena, CA 90249
T. (562) 453-5644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5:30
3부예배(청년부) 오후 1:30 금요성령대림회 금 오후 7:20
EM예배 오전 11:0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7:30

이상훈 담임목사

주비전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 90247
T. (714) 296-6783 www.sbhsvision.org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이중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방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1부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00
EM예배 English Ministry Sunday Service 11:00 am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5:30

김우준 담임목사

트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짐으로 오병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gcc.org

주일1부 오전 8:00
주일2부 오후 12:4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윤 목 담임목사

한인소망교회

복음주의 신학에 기초한 말씀이 선포되는교회

28340 Highridge Rd., Rolling Hills Estate, 90274
T. (310)715-9902

O.C, 엘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1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주일예배 (1부) 10:00am 수요일파기도회 9:00pm
(2부) 1:30pm 금요찬양예배 8:00pm
새벽예배 (화-토) 5:00am (더블) 7:00am
화요일중보기도회 7:00pm 토요일찬양예배 7:00pm

앤드류 김 담임목사

UBM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교회

1531 S. Sinclair St., Anaheim, CA 92806
Tel: 714-634-8360, Cell: 714-600-7700 www.ubmchurch.com

주일예배 오후 12:2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민승기 담임목사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 (714)615-9191, 995-5351 john_m9191@yahoo.com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아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양대학원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화-토) 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받는 교회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한국어) 오전 8:00
2부(한국어) 오전 11:00 말씀묵상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3부(영어) 오후 1:30 한국학교(토) 오전 9:00
주일학교 오전 11:00 Youth Orchestra (주일) 오후 1:30
토요일연합예배 오전 6:30

민경엽 담임목사

나침반교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T. (562)691-0691

1부예배 오전 8:00 중, 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 초등부예배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셀가옥 예배 매일 4부 주일 오후 5:30pm
대학원예배 오전 11:00

오병익 담임목사

남가주 벨렐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562) 524-2037 bethelchurcha@gmail.com

1부예배 오전 8시 수요일예배 오후 7시 30분
2부예배 오전 9시 30분
3부예배 오전 11시 20분
영아예배(ECC) 오전 9시 30분
청년예배 오후 1시 30분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저녁 8: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오전 6:00(토)
교회학교 주일 오전 11:00

이 일 담임목사

남가주순복음교회

예수 사랑으로 열방을 섬기는 복음의교회. ALL IN JESUS 복음의 모든 것을 가는 예수공동체

10871 Western Ave., Stanton, CA 90680
T. (714) 952-0191 / www.socalfgc.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주일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포 세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9:00 교육부 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원생부

왕상윤 담임목사

넥스트사랑의교회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

11 Musick Honor Farm Rd, Irvine, CA 92618
T. (949) 829-0010

주일예배(KM) 주일 11: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영아예배(EM) 주일 9: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5:30(화-금)

www.dagamsachurch.org

다 감사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교회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988-3321, (562)896-1665

1부 예배 오전 8시 주일학교 오전 11시
2부 예배 오전 11시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시 30분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Youth/ College 주일 오전 11시

안성복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하나님이 주신 직업을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1부 오전8:30 주일학교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5:30
3부 오후 12:20 토 새벽 6:20
4부 오후 2:00(젊은이예배)

고현종 담임목사

디사이플교회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공동체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 (949)502-4923 / www.disciplecc.org

주일예배 오전 11시 30분
인간이예배 오전 11시 30분
인간이예배 오후 7시(수) 제자서신 오전 9시 30분(금)
중보기도 오후 8시(목) 새벽기도 오전 6시(화-목)

람학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8:45 금요 Alpha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오전 6:00(토)
EM예배 오전 9:30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성인 영아 예배 오전 8:15,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15 일본어 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1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영아, 유아, 주일학교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Youth 청년 오후 12:30

정기정 담임목사

샘물교회
샘물이 흘러나와 사람과 세상을 살리는 교회

11909 Courser Ave, La Mirada, CA 9063
T. (714)749-7770 www.saemmoool.church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 오전 9:15 중등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한여부 오전 11:3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권혁빈 담임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다들 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아)
2부예배 오전 9:30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30 오전 6:00(토)
4부예배 오후 1:30(청년 한국어) 청년부 수요성경기도회 오후 7:30
FAME예배 오전 11:30(청년 영아)

김인철 담임목사

얼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기쁨의 공동체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예배 오전 6:30
주일예배 오전 11:30
목요예배 오후 7:30
토요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 (213)291-5901 / (714)833-2568 daekwon.org

주일 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주일 오후 1:30
수요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화-토 오전 6:00
E.M.(Youth)오전 11:00

김인철 담임목사

오렌지가나안장로교회
교회와 나는 하나이며 기쁨도 슬픔도 함께하는 운영공동체

940 W. Wilshire Ave. Santa Ana, CA 92707
T. (714)549-0121 www.myocpc.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찬양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목)
수요예배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끄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oc.com

1부예배 오전 0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3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경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반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하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예배 오전 10: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수요예배 오후 7:30

최성철 담임목사

좋은나무교회
말씀을 배워 성령의 은혜를 받으며 예수님의 걸음을 따라가는 교회

15310 Alondra Blvd. La Mirada, CA 90638
www.goodtreefellowship.com

1부예배 오전 8:3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히스패닉 예배 오후 5:00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예수님의 제자되고 되게하는 믿음의 공동체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주일 삼미예배 : 오전 9:00am 금요기도회 : 금요일 오후 6:00pm
주일 한국어 예배 : 오전 11:00am 새벽기도 : 월-금요일 오전 5:30am
주일 영어 예배 : 오전 11:00am 토요일 오전 6:00am
주일 유초등 예배 : 오전 11:00am

임경남 담임목사

토기장이교회
회복과 회심을 경험하는 예배공동체

1937 W. Chapman Ave., Orange, CA 92868
T. (714)234-5338 / www.pottersccc.com
E-mail : info@Pottersccc.com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EM CHURCH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PASTOR JUSTIN KI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7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Placentia Site Sunday Services: 10 AM
Artesia Site Sunday Services:
11:30 AM, 1:15 PM

PASTOR HAROLD KI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Artes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Placentia: 500 Bradford Ave, Placentia, CA 92870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oc.com

EM Sunday Service: 12:00 PM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 Young Adults): 7:30 PM

PASTOR JOSEPH SUK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Sunday Service: 9: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PASTOR RONNIE PARK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gsch.org

Sunday Services: 11:45 AM

PASTOR DAEVID YOON

Inland Church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 inlandem.org

Sunday Service: 2 PM

PASTOR SUNGWON 'SJ' JAHNG

LA Open Door Community Church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986-8496 / www.laopendoor.church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더 이상 기도는 원치 않는다...
총기를 규제해달라”
LA에서 벌어진 총격사건으로 아들 잃은 유가족의 호소



수잔 오르파노스 씨(오른쪽)와 27살 아들 텔레마쿠스 오르파노스. ©ABC13 보도화면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교외의 한 식당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해 12명이 사망했다. 계속되는 총격 사건으로 유가족들 사이에서 “더 이상 기도는 원치 않는다. 총기를 규제해달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에 따르면, 용의자인 데이비드 롱(David Long)은 벤루타 카운티 사우전드 오크스(Thousand Oaks)의 보더라인(Boarder line) 바&그릴에서 권총을 난사했다. 오후 11시 20분 경 이곳에 들어가 연막탄을 터트린 뒤 바에 있는 손님과 종업원들을 향해 총탄 30여발을 발사했다. 롱은 총격 직전에 또 도주 중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람들이 날 정신 이상자로 부르길 원한다. 난 제정신이 아니야. 이런 총격이 있고 나서 하는 유일한 일은 기도 뿐이지. 내 마음을 지키겠다는 등 매년 그렇지만 또 일어나는 일이지”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페이스북 측은 그가 글을 올린 사실을 확인했다. 그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의 소셜미디어 계정은 폐쇄됐으며, 경찰은 암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소셜미디어 계정을 조사 중이다. 총격 사건으로 아들을 잃은 수잔 오르파노스(Susan Orfanos)씨는 ABC 13과의 인터뷰에서 “아들은 친구들과 함께 라스베이거스에 갔다가 최근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지난 밤에는 돌아오지 않았

다. 난 기도를 원치 않는다. 어떤 생각도 원치 않는다. 아무도 나를 위해 기도해주길 원치 않는다. 다만 총기의 규제를 원한다. 더 이상은 안된다”며 슬퍼했다.

그녀의 아들 텔레마쿠스 오르파노스(Telemachus Orfanos)는 당시 총격으로 목숨을 잃은 12명 중 한 명이다.

웨스트레이크 빌리지(Westlake Village)에 위치한 갈보리커뮤니티교회(Calvary Community Church) 손 쏘튼(Shawn Thornton) 목사는 ABC2와의 인터뷰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벌어질 당시 보더라인 바&그릴에는 20~30명의 청년들이 있었다. 우리 교회는 희생자들을 위한 철야기도를 진행하고, 주중에도 지속적으로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인들 중 3개 가정의 총격으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회의 파트타임 직원이었던 노엘 스파크도 희생자 중 한 명이었다. 그녀는 학교를 다니며 교회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해왔다.

그녀가 어릴 때, 성가대와 여러 활동으로 예배를 섬겼던 연합감리교회 월터 딜그(Walter Dilg) 목사는 “그녀가 우리 교회에서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번 일로 몹시 슬퍼하고 있다. 오늘 밤 발생한 총격 사건의 피해자들 가운데 노엘 스파크도 있었다는 사실을 무거운 마음으로 전한다”고 전했다.

강혜진 기자

나이지리아 델타주에서 납치된
사제들 4명 석방돼



나이지리아 남부의 델타주. ©위키피디아

나이지리아 델타주에서 납치됐던 4명의 사제들이 석방됐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12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와리(Wari)에서 회의를 마치고 돌아오던 이들은 총을 든 괴한들에게 납치됐다. 현지 매체인 사하라리포터스(SaharaReporters)는 “납치되었던 이들이 9일 풀려났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사제는 “납치자들이 요구한 액수(5만 5,500달러)는 아니었지만, 몸값이 건네졌다”고 했다. 납치되었던 이들은 빅터 아디볼루자(Victor Adigboluja) 사제, 앤소니 오텔볼라(Anthony Otegbola) 사제, 조셉 엘디아에(Joseph Ediae) 사제, 임마누엘 오밧제레(Emmanuel Obadjere) 사제다. 델타주 경찰위원회에 소속된 무함마드 무스타파는 사제들의 석방 소식을 확인해주었다. 나이지리아 델타 지역은 납치과 폭력이 자주 일어나는 장소이다. 1년 전에는 영국 선교사들이 이곳에 위치한 숙소에서 납치된 적이 있다.

강혜진 기자

카메룬서 납치된 기독교인 학생들
약 80명 풀려나

카메룬 서부에서 무장한 군인에 의해 납치된 학생들 중 일부가 풀려났다. 풀려난 이들은 “납치범들이 우리에게 다시는 학교에 가선 안된다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에 따르면, 납치자들은 7일(현지시간) 약 80명의 학생들과 운전자를 풀어주었다. 그러나 원장과 교사 한 명은 여전히 억류된 상태다.

무장한 이들은 지난 5일(현지시간) 바멘다의 한 기독교학교에서 학생들을 납치했다. 정부군과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한 사제는 이번 납치 사건의 배후로 분리주의자들을 지목했다. 그러나 분리주의자들은 이를 부인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에 따르면 학생들의 등교를 막는 것은 영어권 분리주의자들이 선호하는 전략 중 하나이다. 이들은 학교가 정부의 선전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카메룬의 언어 분열은 1차 세계대전 이후 생겨났다. 독일의 식민지였던 카메룬은 동맹국 프랑스와 영국에 의해 분할되었다.

추수감사절의 근대적 유래

감사절의 유래는 구약시대 맥추절이다. 맥추절(the Feast of Harvest)은 5월 중순에서 6월 중순 밀(wheat) 추수가 끝날 무렵, 우량품들로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추수 감사제였다(출 23:16, 34:22).

그러나 그 근대적 유래는 북미 대륙을 개척한 청교도들(Pilgrims)로부터 유래한다. 청교도들은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지의 북미 대륙으로 온 경건한 신앙인들이었다.



조 영엽 박사
세계교회문제 연구소 대표

까지 북미로 건너간 청교도들은 약 22,000-50,000명에 달한다.

2. 102명의 청교도들과 메이플라워호

북미 대륙을 발견한 것은 스페인의 콜럼버스(Columbus, A.D. 1446-1506)였고, 북미로 처음 이주한 사람들은 영국 청교도들이었다. 이들을 가리켜 순례자의 조상들(Pilgrim's Fathers)이라 부른다. 이들은 1600년대 초기부터 신앙의 자유를 찾아 대서양(Atlantic Ocean)을 건너 미 대륙으로 이주하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도 102명의 청교도들은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북미 대륙으로 이주했는데, 이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다.

청교도들은 영국 남해안 플리머스(Plymouth) 항구에서 1620년 8월 5일(지금 달력으로 8월 15일) 스피드웰(Speedwell)과 메이플라워(Mayflower)호를 타고 美 대륙을 향해 항해를 시작했다. 그러나 초반에 배가 고장나 물이 새 다시 귀항했다.

한 달 후인 1620년 9월 6일, 결국 메이플라워호만 25명의 선원과 102명의 청교도들이 승선하여 미국 동해(대서양) 중부지방 버지니아(Virginia)를 목적지로 삼고 재차 출발했다. 남자 78명과 여자 24명 등 전체 102명이 출발했으나, 항해 도중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탄생했다.

그들은 그해 11월 11일 버지니아 대신 미국 동북부 메사추세츠 케이프 카드(Cape Cod) 해안가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5일간 주위를 답사한 후 11월 16일 현재의 플리머스(Plymouth)에 정착했다. 63일간 3,400마일(5,440km)의 멀고도 긴, 그리고 위험한 항해 끝에 닿은 내렸던 것이다. 그들은 영국을 떠날 때 항구 이름을 따라, 그곳을 플리머스라 명명했다.

미국 동해안은 항상 북서풍이 불기 때문에, 남쪽 버지니아로 가려던 배는 북쪽 메사추세츠에 도달했던 것이다. 그들은 토요일에 도착했지만, 주일을 지키기 위해 길고도 지루하고도 위험한 항해를 거쳤음에도 주일을 배 안에서 보냈다. 그들은 항해 동안 어떻게 보냈는가? 그들은 찬송을 많이 불렀다. “우리는 대부분 시편을 찬송으로 불렀다. 주일은 모두가 찬송만 불렀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들(청교도 개척자들)은 도착한 후 형언할 수 없이 어려운 난관에 부딪혔다. 11월 중순 도착

한 그들은 강풍과 눈보라 치는 혹독한 추위, 질병과 식량 부족, 원주민들의 냉대, 들짐승들의 위협, 거할 집 하나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다. 결국 그해(1620-1621) 겨울, 2-3개월 내 102명 중 절반 이상이 운명을 달리했다.

특히 1-2월의 혹독한 겨울에는 하루에 2-3명씩 죽어나갔다. 생존자는 50명뿐이었고, 그들 중 다수도 지치고 건강이 쇠약해져 질병으로 신음했다. 그러나 6-7명의 건장한 사람들이 쾌감을 마련하고, 침실을 만들고, 병자들을 간호하며, 병자들과 노약자들의 옷을 빨아입히고, 칠면조와 사슴 등을 사냥하여 고기를 조달하는 등 자발적으로 헌신했다. 엄동설한도 지나고 따스한 봄날이 찾아오자, 생존한 청교도들은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가꾸어 여름과 가을 기대 이상의 추수를 하게 됐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했다.

청교도들은 북아메리카로 건너온 다음 해인 1661년 가을, 하나님께 첫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다. 추수한 첫 곡식들과 채소들 중 최고 우량품들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렸다. 그들은 기도 중에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 여러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나이다”라고 기도했다.

청교도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첫 추수 감사예배를 드렸다. 첫날인 주일에는 온종일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찬송부르고, 말씀 받아 묵상했다. 둘째날에는 칠면조 요리, 감자, 옥수수 요리 등을 만들어 서로 나눠먹고, 셋째날에는 인디언 추장 마싸소이트 등을 초대해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친교했다. 90명의 원주민 인디언들은 칠면조 구운 요리와 호박파이(pumpkin pie)를 가져와 같이 친교를 나눴다. 그것이 유래가 되어 추수감사절에는 칠면조 고기와 호박 파이를 먹게 됐다.

청교도들은 통나무들을 잘라 먼저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지은 다음에야 자신들의 집을 지었다. 그들이야말로 북아메리카의 개척자들이요, 믿음의 선조들이었다. 그들은 철저한 주일 성수, 십일조, 경건 생활을 했다.

감사절의 공식 법정 공포(公布)

윌리엄 브래드포드 메사추세츠 주지사는 1623년 7월 30일, 감사절을 3일간 지킬 것을 공포했다. 조지 워싱턴 미국 초대 대통령은 1789년 10월 3일, 전 국민이 감사절을 지킬 것을 공포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 그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의 축복에 감사하는 것, 그리고 그의 보호 하심과 호의를 겸손히 간구하는 것은 모든 나라들의 임무이다.” 아브라함 링컨 미국 제16대 대통령은 추수감사절을 매년 정기 감사절로 지킬 것을 제안, 의회는 이를 가결했다.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할 아내를 오히려 더 위험에 던져 놓고 자기는 살겠다는 치사하고 부끄러운 남편의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심장 질환을 아들도 똑같이 갖게 되었을 때, 혹은 엄마가 자궁암으로 떠났는데, 딸이 같은 병으로 치료를 받게 되었을 때, 피에 흐르는 내재된 끈질긴 유전성이 바로 죄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흐르는 유전적 죄성을 조심히 살펴 보아야 합니다. 게으름, 자기연민, 습관적 자기변명, 반항 기질, 격정을 사서 하는 부정적 생각 등 이러한 죄악의 뿌리들을 끊어 내야 합니다. 이런 유전적 죄악들이 우리 삶 속에 재현될 때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뿌리를 캐는 제근(除根) 작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1. 청교도들이 북미로 오게 된 역사적 배경: 헨리 8세의 박해

헨리 8세(Henry 8, 1491-1547, 재위 1509-1547)는 자기 아내 캐터린(Catherine)과 이혼하고(1527), 앤 볼레인(Anne Boleyn)과 재혼했다(1533). 청교도들은 정당하지 못한 이혼과 재혼을 반대했다.

헨리 8세는 그 일로 로마가톨릭으로부터 파문(성찬참여 정지 등) 당했으나, 생애 동안 천주교 교리를 신봉했다. 그는 또 1534년 자신(영국의 왕인 동시에 수장(首長)이 된다)을 영국 교회의 머리(the head of the Church of England)라 주장하면서, 로마가톨릭 교황청과 행정적 관계를 단절해 버렸다. 동시에 영국교회는 캔터베리(Canterbury)와 요크(York) 회의에서 헨리 8세를 교회의 수장(首長)으로 모실 것을 결의하고, 교황은 영적 문제에 권리가 없음을 선언했다.

메리 여왕(Queen Merry, 재위 1553-1558)은 헨리 8세와 그의 첫 아내 캐터린(Catherine) 사이에 태어난 딸로, 고집불통의 잔인한 여왕이었다. 그녀는 폴(Pole) 추기경의 도움으로 천주교 회복을 도모했다. 그때 개신교 지도자들인 토마스 크램머(Thomas Crammer), 라티머(Latimer), 리들리(Ridley) 등 약 200명의 감독들, 학자들 그리고 남녀 성도들을 이단으로 정죄하여 화형(火刑)시켰다. 그때 청교도들은 제네바, 취리히, 프랑크푸르트 등으로 망명하게 됐다.

엘리자베스(Elizabeth 1, 1533-1603)는 메리 여왕에 이어 1558년 11월 17일 즉위한 후, 1559년 4월 29일 수장령(The Act of Supremacy)을 공포했다. 엘리자베스 1세는 헨리 8세와 둘째 부인 앤 볼레인(Anne Boleyn)의 사이에 태어난 딸이다. 수장령이란 왕이 종교와 정치에 유일한 통치자임을 공포한 법령이다. 그리하여 왕이 국가의 머리도 되고 동시에 (영국)교회의 머리도 됐다.

영국교회(Anglican church)는 왕이 교회의 머리요 교회의 감독들은 왕을 대신하여 교회를 다스리기 때문에, 감독교회(Episcopal Church)라고도 부른다.

영국 정부와 영국 교회는 상호 결탁하여 청교도들을 반대·탄압·투옥·고문하면서 심한 핍박을 가하였다. 그리하여 헨리 8세, 제임스 1세(1600-1649), 찰스 1세(1625-1649) 때 청교도들은 북아메리카로 많이 떠났는데, 1620-1640년대

데자뷰

인생을 살다가 지금 일어나는 일이 전에도 경험했던 일이라고 느끼는 것을 데자뷰(déjà vu)라 합니다. 거의 반복될 수 없는 희안한 일을 겪으면서 이상하게 어렸을 때, 똑같은 경험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지난 주 로스앤젤레스(LA) 북서쪽 사우즌옥스(Thousand Oaks)의 한 컨트리음식당, Borderline Grill & Bar에서 일어난 총기난사 사건으로 12명이나 희생되었다는 가슴 아픈 소식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살아남은 생존자 일부가 지난해 10월 미범죄 역사상 최악의 총기난사 사건인 라스베이거스 총격 사건도 경험했던 자라고 합니다. 니콜라스 쉐피언이라는 남성은 CBS 뉴스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내 생애에 두 번째”라며 “그것도 1년 1개월 만에 반복됐다”고 말했습니다.



김 한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랄(Gerar)에 거할 때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창 26장).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의 생애에 두 번씩이나 있어서는 안 될 일을 겪는데, 아들 때에 와서 또다시 겪는 일 “déjà vu all over again”이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최악의 뿌리와 습관이 얼마나 깊이 박혀 있는지 잘



제 52차 정기총회 공고

남가주한인목사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기총회를 개최하오니 회원 목사님들은 모두 참석하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함께 교제하며 함께 사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일시 : 2018년 11월 19일(월) 오전 10시
- 장소 : 오직예수선교교회(샘 신 목사)
- 주소 : 3407 6th St. #103., LA, CA 90020
- 등록비 : \$20(필수)
- 문의 : 총무 양경선 목사 T.(213)255-1725



Happy Thanksgiving

이민법 전문 변호사 지니정

비자, 영주권으로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어떻게 준비를 하긴 해야 하는데, 막연하게 시간만 보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민법 변호사 선택, 참 잘했다! 체험해 보셨습니까? 당신의 관심있는 곳에 저희의 관심이 있습니다. 결혼 영주권을 비롯한 이민법에 관해 탁월한 지혜와 풍부한 경험으로 문제를 기회로 숨겨진 축복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엘에이 이민법 지니정 변호사에게 믿고 맡기시면 편안합니다.

- 취업비자(H-1B)
- 투자비자(E-2)
- 학생/종교비자
- 투자이민(EB-5)
- 취업이민(PERM)
- 가족이민/종교이민
- 시민권
- 추방재판/추방면제
- 입국금지재판
- 이민관련형사법
- DACA
- 드림법안

지니정 변호사

- UCLA 심리학 학사(B.A.)
- Univ. of San Diego 법학박사(J.D.)
- F.B.I 근무
- 한국 Kim & Jang Law Firm 근무
- 한인 커뮤니티 변호사협회 이사
- L.A. 한인 상공회 이사
- 캘리포니아 재판 변호사 협회원
- 전국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www.jjounlawfirm.com
jjounlawfirm@yahoo.com

Tel. (213)427-9750 Fax. (213)427-9774
3600 Wilshire Blvd. #1416., Los Angeles, CA 90010

동부사랑의교회 담임목사 청빙 공고

캘리포니아 LA 동부에 위치한 동부사랑의교회(East Sarang Community Church)에서는 2대 담임목사를 아래와 같이 청빙합니다.

본 교회는 미국 장로교(PCA)에 소속된 교회로 2007년 개척하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잘 부흥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다음세대를 아름답게 이끌어갈 담임목사를 청빙합니다.

- 자격요건
 1. 정규신학대학원 졸업만 분 (M.Div)
 2. 미국 장로교(PCA) 노회 가입이 가능한 분
 3. 5년 이상 full time 목회 경력이 있으신 분(미국 또는 한국)
 4. 미국 체류 신분에서 법적 문제가 없으신 분
- 제출 서류
 1. 이력서(가족사진 첨부)
 2. 목사 안수 증명서
 3. 최종 신학교 졸업증명서
 4. 목회계획서(목회 비전과 계획)
 5. 자기 소개서(성장배경, 신앙간증, 소명, 목회경험, 사모 및 가족소개)
 6. 1년 이내의 설교 2편(DVD와 동영상 링크 주소)
 7. 3인의 목사 추천서(추천인이 사진과 함께 escpc2@gmail.com로 직접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마감

2018년 12월 2일(주일)까지 마감합니다.
- 제출 방법
 1. 우편 제출처
동부사랑의교회 청빙위원회 / ESCC Pulpit Committee
주소: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2. 이메일 제출처 (escpc2@gmail.com / 이 메일로 보낼 시 PDF 파일로 작성)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비밀이 보장되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동부사랑의교회 (East Sarang Community Church)
주소: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전화: 909-590-3722(ESCC) web: www.eastsarang.org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CD PRINTING
 교회학교, 부흥회 시디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장,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323.265.0244 junimedia@gmail.com
 www.junimedia.com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
 1,000장 \$350
 3,000장 \$950
 (3천장 이상시 디자인무료)

\$160 (디자인 포함)
 Retractable Banner \$140
 Stand X-Banner \$65

ORION AUTO SERVICE

ASE CERTIFIED
 •SMOG •INSPECTION
 •TUNE-UP •BRAKE
 •FUEL INJECTION ETC.

2217 S. Normandie Ave.
 Los Angeles, CA 90007
 Tel. (323) 732-4669

가스 스테이션 옆에 있습니다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미안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 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 (213) 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기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 580-2424
 (310) 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 90248

리프팅 라인·지방분해

최신장비도입
 *리프팅 라인 4회 \$999
 *부분지방 분해 5라인 8회 \$999

•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 각종 피부병과 아토피
- 습진 화농성 여드름

✓ 손가락 { 류마티스 관절통증 }
 ✓ 발가락 { 퇴행성 관절통증 }
 ✓ 마디관절 { 손목, 발목 질환 }

*지독한 코골이 증상

- 치질(항문하혈, 통증)
- 독소제거, 혈관 청소
-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 불임증 (자궁축, 하혈)
- TMJ 턱관절 장애
- 우울증
- 관절염, 다리 쥐 오름
- 원형탈모, 지독한 비듬
- 만성두통, 요통

치아 파우더 3대째 기업으로 이어온 영선한의원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달분 \$60

배 빠는 속변약!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한달 \$50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213) 380-7800 각종보험취급 (교통사고 전문 병원)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 월~금:10시~5시/ 토 10시~2시

TOP MEDIA www.TopmediaUSA.com
 SIGN & PRINTING 323.265.0244

TRUCK & VAN WRAPS
 BANNER & SIGN
 PRINTING & COPY
 TRADE SHOW ITEMS

Promotion Items Stickers & Label Package Design T-shirt Print Printing & Copy
 Sign & Banner Trade Show Items Van Warp Truck Warp Food Truck Warp

웨스트힐장로교회, 화재속에 경험한 '세가지 기적'



11월 11일 주일 1부 예배가 끝나고 30~40분 후 2부 예배가 시작될 무렵 화재가 완전히 진압됐다.

1번에 이어서

불이 붙은 그 지역은 점점 불길이가 확장되며 내려왔고, 급기야 사람들이 사는 웨스트힐 근처 주거지역까지 엄습해왔고, 웨스트힐 지역도 이내 강제퇴거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금요일 오전부터 거의 9시간 이상을 소방헬기와 소방관들이 사투를 벌이는 진화작업을 벌였건만, 금요일 저녁 8시경이 되었을 때 불길은 점점더 확장되고 거세어져 교회 건물 바로 옆에까지 불길이가 붙은 것처럼 근접해 오게 되었을 때, 담임 목사로서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는지 모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7절의 말씀을 되뇌이며,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지만 세상에 기도만큼 강력한 방어는 없으니, 교회의 리더들과 목사들에게 합심으로 기도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비록 불이 교회 근처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저도 에스더의 심정으로 본당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올려드린 한 시간의 집중적인 기도를 마치고, 밖의 화재상황을 확인하고자 조심스레 나가 보았을 때, 제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교회 주변에 보이던 맹렬히 타오르던 붉은색의 화염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차를 몰고 불이 번지던 지역 주변지역까지 차분히 돌아보았습니다. 역시 불이 보이지 않았습다.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밤 9시까지 10시간 이상 소방헬기가 물을 아무리 쏟아 부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점점 번져나가며 교회까지도 근접해 왔었던 화재였는데, 성도들과 함께 본당과 각자의 처소에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여 동안 믿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한 짧은 시간안에, 불던 광풍이 일제히 잠잠해지고, 맹렬한 불길이가 순식간에 잡히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불이 타오르던 그곳에서,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했던 밤 9시부터 밤 10시 사이에 바람이 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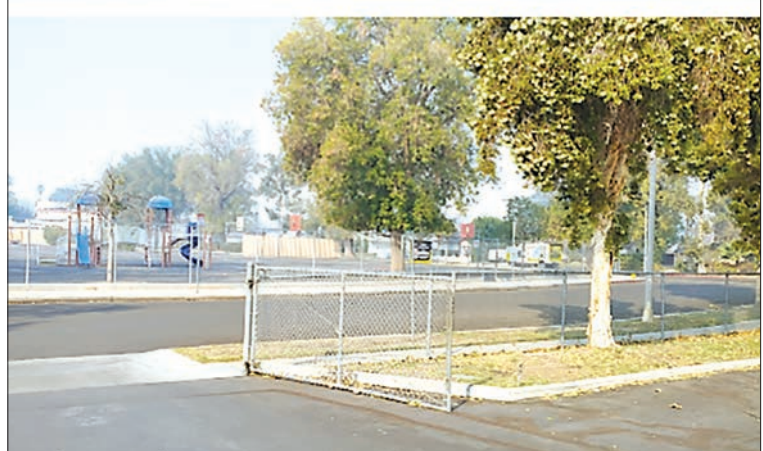
히 잠잠해지고 불이 급속히 꺼져가는 그 경이로운 광경을 현장에서 목격했던 지역주민의 생생한 증언을 후에 들으며, 과연 하나님이 하신 일이로구나 라는 감탄과 함께 성도들과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금요일 밤에 불이 교회 근처에까지 번지고 있을 때, 교회 건물 주차장 입구에서 찍었던 사진과 토요일 이른 아침에 같은 곳에서 찍은 다음의 두 장의 사진 안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예배처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첫번째 기적'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두번째 기적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11월 11일 주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동네에 불에 탄 냄새가 제법 많이 났고 하늘도 회색 빛이 맴돌았지만, 예배드리기에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어서 주일 1부와 2부 예배를 평상시처럼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강제퇴거명령으로 대피중인 성도들이 많기에 주일예배에 많은 분들이 못 오실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보기 좋게 빛나갔습니다. 평소와 거의 비슷한 수의 성도님들이 주일 1부 예배에 참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자체로 성도들에게 무언의 덕세움과 격려가 있었고, 우리의 믿음의 제사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특별한 풍성한 은혜가 있는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1부 예배 축도를 마치고 성도들과 인사를 나누러 로비에 섰는데, 어떤 분이 당황스런 얼굴로 다가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웨스트 힐 지역에서 금요일 밤에 꺼진 줄 알았던 불이 오늘 주일아침 어디선가 다시 불이 옮겨 붙어서 지난 금요일처럼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고, 웨스트힐 지역에 강제퇴거명령이 내려졌다고 다시 뉴스방송에 나왔습니다. 위급한 상황이라 교회 2부 예배를 드리기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심하며 믿음을 잃어버리기 딱 좋은 상황입니

까!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상황이 다시금 심각해졌는데, 제 마음속에는 상황을 초월하는 변함없는 평안이 머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날 설교한 본문 말씀 중,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는 요한복음 11:40의 예수님의 말씀이 제 마음속에 가득 차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과 함께 믿음의 결정을 내리고, 2부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기로 했고, 만약 예배중에 경찰이 긴급히 퇴거하라는 명령을 하면,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고 경찰의 명령을 따라 질서있게 해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러자 조금은 불안해했던 예배를 섬기는 몇몇 성도님들도 평안을 되찾았습니다. 이내 저는 다시금 본당으로 내려와 하나님께서 또 한번 불과 바람을 다스려 주시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일 2부 예배를 간절한 기도로 준비하였고, 오전 11시에 2부 예배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배 중에도 설교하기 전인 11시 30분경까지 불과 바람이 꺼지도록 마음으로 읊조리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설교 순서가 되어 믿음으로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였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가 성도님들에게 부어졌습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말씀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아무런 문제없이 2부 예배를 잘 마칠 수 있었고, 성도들은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안고 그 외중에도 여유있게 점심식사 교제까지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시간이 조금 지난 시점에 한 성도님이 제게 찾아와 놀라운 사진 2장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주일 당일, 오전 웨스트힐 지역에 관한 보도가 abc7 뉴스 생방송에 나온 화면을 찍은 두 장의 사진인데, 한 장은 웨스트힐 지역에 다시 불이 불어 타오르던 11월 11일 주일 1부 예배후 당시의 모습이었고, 그 다음 사진은 불이 꺼지기를 믿음으로 기도한 후, 주일 2부 예배 설교에 들어갈 무렵의 사진이었습니다. 1부와 2부 약 30-40분의 짧은 상간에, 저와 성도들이 다시금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갔더니, 강하게 불던 바람이 일제히 잠잠해지고, 다시금 오전에도 보일만큼 붉게 물들었던 불이 완전히 꺼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기가 막힌 것은 불이 꺼진 시각이 바로 11월 11일 주일 오전 11시 34분, 2부 예배 설교를 하러 강단에 올라갈 무렵이었습니다. 주일 오전 뉴스에 방영된 두 장의 사진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두번째 기적'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예배처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첫번째 기적'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세번째 기적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남쪽 캘리포니아의 불길이가 안정권으로 잡히게 되면서, 11월 12일 월요일 밤 9시경을 기점으로, 퇴거명령으로 다른 곳에 대피하였던 성도님들이 다시금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거주하는 것이 허락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대피하였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11월 13일 화요일 즈음이 되어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화재후의 상황을 직접 살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네를 뒤덮은 불길에 우리집도 다 타버리지는 않았을까..." 라는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확인하러 자신들의 집에 들어갔던 성도님들에게서, 많은 간증의 메시지와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많은 지역들을 뒤덮은 엄청난 화염으로 인해 대피한 우리 교회의 가정들이 각 지역마다 많았지만 오늘까지 거의 대부분의 가정들이 자신의 집으로 복귀하여 화재 진압 후 자신의 집들을 확인한 결과, 단 한 가정도 화재에 피해를 입은 집이 없다는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집이 바로 산불 아래여서 집이 다 탔을 거라는 절망속에 흑시나 하며 집을 보러 갔는데, 불이 집 앞뒤로 훑고 지나갔던 검은색 흔적들이 자욱했지만, 자신의 집은 조금도 해를 끼치지 않고 그냥 우회해서 지나갔다는 간증도 있었고, 그 밖에도 간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30여가정의 성도들의 가정이 화재로 인해 강제퇴거되어 그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대피하였으나, 전능하신 아버지

께서 한 가정도 피해가 없도록 지켜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란 분을 눈으로 보옵고 몸으로 체득하게 된, '세번째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나가며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떨기나무에 분명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태워 없어져 버리지 않도록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에게는 그 기적 자체가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기적을 허락하신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과 실존을 직면하는 것이 더욱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모세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을 이끌어내라는 부르심에 비로소 순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번 화재를 통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서, 웨스트힐 장로교회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베푸신 기적들을 그와 같은 관점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보호하심을 웨스트힐 장로교회에게 허락하신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과 실존을 직면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결과, 북쪽 캘리포니아에서 화재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물론, 열방에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인도해야 할 소명에 무던히 순종하는 교회가 되도록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목회학 박사 (한국어과정) 학생모집

미동부지역 전통있는 명문 신학대학교인 뉴욕 신학대학교(New York Theological Seminary)에서 한국어목회학 박사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NYTS는 1900년 뉴욕에 설립된 ATS정회원 학교입니다.

등록마감일: 2018년 10월 31일

등록상담전화 : 213-272-6031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

NEW YORK THEOLOGICAL SEMINARY

...continuing The Biblical Seminary in New York

한국어목회학 박사과정 (Korean D. Min Program): 정원1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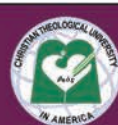
교수진 NYTS 본교 교수진이 직접 L.A에서 지도(영어강의는 통역이 제공)

강의 장소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 강의실 276 S. Rampart Blvd. L.A, CA 90057

1차수업: 2018년 12월 17일(월) - 12월 21일(금) | 40시간
강의#1 선지적 설교, 강의#2 논문작성법 | 교수: Rev. Dr. Keith A. Russell

2차수업: 2019년 6월 17일(월) - 6월 21일(금) | 40시간
3차수업: 2019년 12월 16일(월) - 12월 20일(금) | 40시간
4차수업: 2020년 6월 15일(월) - 6월 19일(금) | 40시간
5차수업: 2020년 12월 14일(월) - 12월 18일(금) | 40시간
6차수업: 2021년 5월 31일(월) - 6월 4일(금) | 40시간

학위수여식: 2021년 6월 5일 ※6차수업과 학위수여식은 뉴욕본교에서 진행※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 L.A, CA 90057 | 213-272-6031

“이민교회가 뜨겁게 기도할 때 한반도 통일 앞당겨질 것”

그날까지 선교연합 주관으로 탈북민 목회자들 미주 순회

탈북민 목회자들이 초청돼 ‘북한 교회 재건 및 북한목회 전략’ 주제로 특강 및 좌담 세미나가 열렸다.

그날까지 선교연합(UTD-KCC Mission, 국제대표 손인식 목사)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8명의 탈북민 목회자들이 한국에서 초청돼 오는 7일까지 남가주와 북가주 일대의 한인 교회들을 순회하며 강연했다.

이들은 지난 10월 30일 LA에 도착해 미주 평안교회에서 기자회견 및 주제 강연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탈북민 목회자들은 이번 순회에 임하는 소감을 밝혔다. 송혜연 목사는 “두만강을 넘었을 때 마주친 사람은 미주 목회자였다. 중국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은 목회자가 되어 탈북민들을 섬기고 목회 비전을 갖고 가고 있다. 이번 순회를 통해 북한 교회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탈북민 목회자들은 한반도에 통일이 어떻게 와야 하는지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강철호 목사는 “한반도 통일은 복음 통일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에 평화 통일에 현혹되어있는 것 같은데, 이는 옳지 않다”고 본다. 북한에 영화, 음악 등 한국문화가 들어가고 있는데, 복음은 왜 못 들어가고 있는지 한국교회와 이민교회가 깊이 고민해봐야 한다”며 “이민교회가 탈북민 교회



탈북민 목회자 초청 ‘북한교회 재건 및 북한목회 전략’을 주제로 특강 및 좌담 세미나가 열렸다.

북한에 영화, 음악 등 한국 문화가 들어 가는데 복음은 왜 못들어가는지 교회가 고민해야 성경 100독 하고 성구 1,500구절과 로마서를 다 외우고 북한에 들어가 탈북민에 대한 건강한 시선 키워야, 건강하게 바라봐 달라

와 같이 힘을 합해서 북한에 복음이 전해지는 길을 열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마요한 목사는 “지금 이대로 가다간 분단이 지속될 것 같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 통일이 올 수 있다

고 본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람이 준비되어야 한다. 미국 교포들이 더 뜨겁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한인 디아스포라들을 쓰시리라는 기대가 있다”며 “교회가 깨어서 기도한다면 통일의 길이 앞당겨지지 않

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북한에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 목회자는 “(북한에)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한국교회가 준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탈북민들이 준비되어야 통일이 가

능하다고 본다. 한국에 있는 탈북민 교회가 북한에 세워지는 교회의 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며 “탈북민들만 가지고는 교회를 세우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탈북민들이 한국에 오면 한국 사회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민교회와 한국교회, 그리고 탈북민 교회들이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 복음의 확장을 한반도 땅에 역사하실 것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북한 땅에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고 있는 것에 관련해, 한 탈북민 목회자는 “북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끌려가고 돌아가신 분들도 있다. 성경을 100독하고 성구 1500구절과 로마서를 다 외고 북한에 들어갔었다. 북한에서 1년 동안 몰래 예배를 드렸던 경험은 지금도 잊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건강한 통일을 꿈꾸며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한국에 3만 3천명의 탈북민들이 있는데, 매체에서 건강한 시선을 키워야 한다. 그러나 언론에서 부정적으로 다루는 모습이 많이 있다. 건강하게 탈북민들을 바라봐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회적 인식이 많아져야 한다. 그럴 때 탈북민들이 위축되지 않고 잘 정착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토마스 맹 기자

2면 “다름에 대한 패러다임 바뀌어야 창조적 목회 할 수 있어” 에서 이어서

그는 ‘어떻게 다른 기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의 팀이 되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느냐’가 자신의 목회의 큰 관심사였다고 말했다.

“제가 목회하는 지구촌교회 안에서 일년에 두번씩 하는 게 있다. 은사 세미나를 한다. 아주 단순한 세미나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각각 다른 기질을 갖고 있고, 다른 기질의 사역자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로마서 12장에는 은사들이 나오는 데 모든 은사가 다 필요하다. 어떤 목사님도 모든 은사를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나와 다른 은사를 가진 자가 있으면 더 나은 팀워크를 이뤄낼 수 있다.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비판하는데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은사의 차이와 함께 사역의 현장에서 갈등을 빚는 또 다른 요인은 기질의 차이이다. 그래서 매 학기마다 이 기질 테스트를 시간을 갖

고 있다. 히포크라테스가 4가지 기질설을 최초로 제시했는데 기질은 타고 나는 것이다. 인격은 ‘기질 + α (성장과정, 가치관, 교육, 훈련)’로 만들어진다.”

“모든 기질에는 강점과 약점이 있으며 각각의 개인에게 기질은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인격은 성령의 역사에 의해 바뀔 수 있다. 바뀔 수 없다면 복음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나는 인격은 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타고난 기질의 틀은 바뀌지 않는다.”

그는 참석자들이 간단한 기질 테스트를 직접해 보도록 한 후 각 기질의 특성에 대해 설명했다.

“연극이 성립하려면 4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연극 전체를 기획, 제작하는 사람(PD), 감독, 스타, 그리고 관객이다. 각 기질을 연극의 요소에 비유하면, PD는 우울질, 감독은 담즙질, 스타는 다혈질, 관객은 점액질에 해당한다.”

“다혈질의 가장 큰 욕구는 관심과 칭찬을 받고 싶은 것이다. 스타 기질이 있고 말을 잘하며 표현력이 뛰어나다. 낙천적이고 축제를 좋아

한다. 다혈질이 끼지 않고는 파티는 성립하지 않는다. 반면, 단점은 훈련이 약하고 실망과 좌절을 쉽게 하며 마음 깊은 곳에 두려움, 겁이 많다.”

“점액질은 존중과 이해의 욕구가 강하다. 장점은 중재를 잘하고 침착하고 인내심이 많다. 재치가 있으나 게으르다. 우울질은 완벽, 질서를 추구한다. 선배 목사님 가운데 옥한음 목사님이 대표적이신데 옥 목사님은 집회를 준비하다가 취소한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완벽하게 준비하지 못하면 집회를 취소하셨기 때문이다. 우울질의 장점은 깊은 생각, 재능이 많고 매사에 분석적이고 정서적으로 민감하다. 위대한 과학자 예술가 중에 많다. 단점은 부정적, 비사교적이고 자학적인 것이다.”

“담즙질은 성취와 지배의 욕구가 강하다. 자기가 리더가 될 때까지 주변 사람들을 괴롭힌다. 목표지향적이고 독립적이다. 단점은 지배적이며 거만하고, 참음성이 적다. 목표만 달성하면 된다는 생각이 있다.”

그는 복합적인 기질에 대해, 두번

째 지배적인 기질에 대해, 본래 자신의 기질이 아닌데 주변 환경이나 강요에 의해서 갖게 된 기질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각 기질은 서로 결합이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비정상적인 결합의 원인을 ‘부모의 억압, 배우자의 학대, 편부모’, ‘급격한 환경 변화’ 등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질의 틀은 바뀌지 않으나 성령을 통해 인격이 변화될 수 있다며 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 예로 은퇴후 경기도 가평에 만든 천로역정 순례공원에서 ‘크리스천이 구원을 받는 지점’까지는 전체의 5분의 1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었다.

“크리스천이 멸망의 도사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까지의 과정을 만들어냈다. 멸망의 땅을 떠나 좁은 문과 해석자의 집을 지나 십자가 언덕까지 오는 과정은 전체의 5분의 일에 불과하다. 크리스천의 짐이 벗겨지고 천사가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시다’라고 선포한다. 그것은 5분의 1밖에 안 된다. 가야할 길이 있다. 칭의는 구원에 있어 시작에

불과하다. 성화의 길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수많은 사건을 겪는다. 즉, 구원받았다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느냐가 남아 있다.”

그는 빌리 그레이엄의 부인 루스 여사의 비석에 적힌 구절 “공사 끝,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에 얽힌 이야기를 나누며 강연을 마무리 했다. MBTS는 목회학 박사, 교육목회학 박사, 성경사역학 철학박사 등 다양한 석사 학위과정을 100% 한국어로 제공한다. 북미 주류 신학교의 학위를 인가하는ATS와 미국 내 종합대학교의 학위를 인가하는 최고 인가기관인 HLC에 모두 정식 인가되어있다. 현재 한국부는 630명에 이르며 교과과정이 질적으로 북미 내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다. 입학 정보는 한국부 웹사이트 (<http://www.mbts.edu/academics/koreanstudie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 대학은 2019년 봄학기부터 사모학교(Certificate of Women's Ministry Studies for Korean Pastors' Wives) 과정을 새롭게 개설할 예정이다.

2018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신규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 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대학(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인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석사 과정 개설
- 입학상담: 조영호 박사 76288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류종길 박사, 이사장: 권광수 박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9301 Fax: (323)643-9302
www.aeu.edu/info@aou.edu, aeuinstitute@gmail.com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t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속 목사고시, 인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edu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역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TS.EDU / KEB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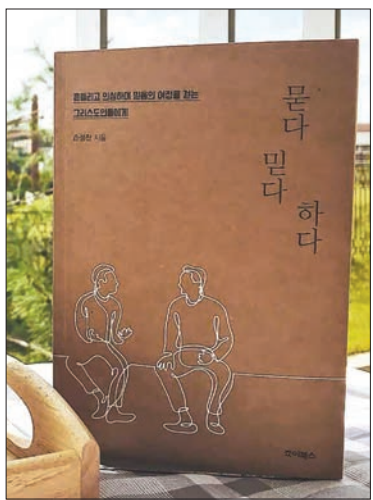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묻다, 믿다, 하다>의 저자 손성찬 목사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24)



손성찬 목사의 저서 <묻다, 믿다, 하다>

아성을 가진 개척교회 목사 손성찬 목사를 만났다. 군종목사로, 부목사로 교회를 섬기면서 유학을 준비했던 손목사는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며 용감하게 교회를 개척했다. 나름대로 안정된 삶을 살아오던 손목사와 아내 김영진 사모에게는 대단한 결단이였다.

손목사의 개척에 선 후배 목사들이 놀랐다. 책 많이 읽는 목사, 건전한 신학을 가진 패기 있는 목사, 선후배들의 인정과 사랑을 받던 손목사였다. 개척교회는 의외였다. 그러나 그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손목사다운 결정으로 이해하고 응원하고 있다. 그리고 개척이 어려운 시대의 현실에도 아름다운 승리의 꽃을 피우리라 믿는다.

개척교회 바쁜 사역의 현장에서 최근 발간한 책 <묻다, 믿다, 하다: '흔들리고 의심하며 믿음의 여정을 걷는 그리스도인들에게'가 기독교 서점가를 강타하고 있다. 벌써 4쇄가 유통되고 있다. 불황에 허덕이는 기독교출판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손성찬 목사를 만나 그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할머니의 유산 그리고 아버지의 선물 인 신앙

손성찬 목사의 신앙은 그의 할머니 때부터 시작되었다. “너무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생각은 나지 않지만, 그분의 헌신적 신앙이, 저희 아버지에게, 그리고 저에게까지 이르게 되어 너무 감사하다. 다만, 지금에서야 감사함으로 고백하지만, 성장과정에서 신앙생활은 결코 녹록치 않았다.”

우선 가난했다. 동시에 아버지가 보수적이고 강하였다. 이런 환경 속에서 장단점이 공존한다. 일탈로부터 약간 비껴나갈 수 있었던 것이 장점이라면, 단점은 자신도 모르게 각인된 신앙행위로 판단하는 율법주의적 시각이었다.

손목사는 현재는 개혁주의 신학

을 기반으로 하는 총신에서 공부하고 대한 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에 소속되어 있지만, 오순절적 영성을 배경으로 성장했다.

소명과 신학 수업의 경험을 나눈다면

목회자인 아버지의 영향 때문에 총신대학에 진학을 했고 군종목사 후보생으로 선발되어 아무런 갈등과 고민없이 총신대학 신학과를 졸업하였다. 그리고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하는 상황이 되었다. 손목사는 이때 자신을 스스로 성찰해 보았다. '이렇게 과정을 마치고 목사가 되어 하나님을 증거해도 괜찮을까?' 갑자기 고민이 생겼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신의 성향, 성품, 목적의식 등을 돌아볼 때에 스스로 자신이 없었다.

이런 질문을 품고 처절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 하나님 앞에서 응답함을 토로했다. 금식 기도 후에 주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얻었다. 아울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확신과 열망도 품게 되었다. '목적의식'이 생겼고 신학 공부에도 열정을 품게 되었다. 그 때부터 그동안 관심이 없던 '신학' 공부 재미있게 되었고, 스스로 공부하며, 목사로서의 사역을 준비하며 주체적으로 목회자 수업을 받게 되었다.

신학대학원에 진학하여 공부할 때 특별한 관심을 가졌던 주제는 '교회론'이었다. 아울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개인적 고민과 관심을 가졌다. 그래서 졸업 논문도 '그리스도인의 음주 문제에 관한 소고'였다. 졸업 후, 군종목사로 임대하기 전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백석대에서 신학 석사(Th.M) 과정을 공부하면서 기독교 윤리를 중심으로 공부할 기회를 가졌다. 여하간 손목사는 신앙인의 실천적 삶의 고민을 품고 살아왔다. 이 고민들이 숙성하여 최근 발간한 <묻다, 믿다, 하다>라는 책을 낳게 하였다.

훈련과 성숙의 기회인 군종목사 생활

20대에 목사가 되어 군종 목사로 임대했다. 그는 군종목사 생활을 '선교사로서의 훈련기간'으로 생각한다. 일반인과는 전혀 다른 문화적 환경을 가진 '군대'와 '군인'들을 섬겼기 때문이다.

군종목사로 보낸 5년의 세월은 행복한 시간이었다. 젊은이들을 만나고 설교할 수 있었고 그들에게 복음을 나눌 수 있었다. 손목사에게 군종목사의 경험은 새로운 목회적 안

목을 갖게 하였다. 그가 이미 갖고 있었던 '틀'들을 깨는 기회가 되었고, 성경과 신학의 본질인 생명 구원에 집중하는 목회의 기쁨을 경험했다. 어쩌면 동시에 군목생활동안 접하게 된 타교단 목사님들과의 인간적이고 신앙적인 교제를 통해서 안목을 넓히고 신학과 사람에 대한 폭 넓은 이해를 얻게 되었다. 나아가 군대에서 만난 타종교 성직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복음과 진리의 가치를 깨닫게 되고, 기독교 복음의 독특성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다.

책을 많이 읽는 목회자

손성찬 목사는 책을 많이 읽는다. 선 후배들이 그를 만나면 요즘 읽고 있는 책이 무슨 책인가를 묻는다. 기자도 그를 만나면 요즘 읽고 있는 책을 물었고, 오랜만에 SNS로 소통하면서 추천할 만한 책을 물었다. 그는 책벌레다. 그는 늘 새로운 책을 추천받고, 새로운 책을 찾고 있고, 새로운 책을 읽고 있다. 손목사는 자신의 군종목사 생활을 통해서 얻은 가장 큰 유익이 '독서습관'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라 말한다.

27살에 목사안수를 받고 군인 교회 담임 목사가 된 것이다. 군인교회는 젊은 군인들뿐만 아니라 군인간부들도 있었고, 군인 가족들이 있는 엄연한 교회였다. 20대 젊은 담임 목사는 미숙을 보충하는 것이 너무 절실했다. 자신의 미숙함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독서를 선택했다. 손목사는 3년 정도 미친 듯이 독서에 몰입했다. 군종목사 시절의 독서를 통해서 독서습관과 책을 선택하는 안목을 얻게 되었다. 손성찬 목사는 독서의 기쁨과 유익을 누리며 나누기 위해 독서클럽에 열심히 참가하고 있다.

<묻다, 믿다, 하다>를 출판하며...

군종목사로 임대한 이후 목사 현장에서 고민이 많았다. <묻다, 믿다, 하다>는 10여년간 다양한 현장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며 공부하고 고민했던 것들을 나름대로 풀어 낸 것이다. 손목사는 끊임없이 '왜?'라는 질문을 던지고, 홀로 숙고하고 사색하는 것을 즐긴다. 아울러 기존의 것을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하려고 노력한다. 독서, 사색 그리고 새로운 시도가 그의 캐릭터다.

<묻다, 믿다, 하다>는 초신자들이나 교회 젊은이들이 궁금하지만 교회에서 쉽게 질문할 수 없는 문제들을 다루었다. 어떻게 보면 시시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사소해 보이는



손성찬 목사

문제들부터 조금은 심각하고 진지한 문제들을 가볍게 다룬다. 이런 문제들을 손성찬 목사의 안내대로 풀어 가면 가벼운 문제가 되고, 이 책을 덮을 때쯤이면 제기된 질문들이 시시한 질문으로 여겨지고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들이 있음을 깨닫게 된다.

개척교회 목사로 살아간다

그는 개척교회 목사다. 수개월 전에 개척한 이음 숲 교회 담임 목사다. 신학교를 거쳐, 군종목사로 부목사로 살아오면서 교회 개척은 거의 생각해보지 않았다. 아니 애써 외면하며 살아왔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하면서 순종의 용기를 썼다. 목사 안수를 받은 이후 그는 비교적 평탄한 삶을 살았다. 그래서 개척 교회 목사가 되는 것도 고민 없이 순종하게 되었다.

'교회 개척'은 '교회'를 교의적, 실천적, 목회적 의미에서 섬기는 '목사'가 되어 '하나님나라 세움'에 동참하겠다는 소박한 마음으로 시작했다.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고 소위 성공하는 목사가 된다는 기대를 갖고 시작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진솔한 결단이었다. 요컨대 '잘될 것'같아서 시작하지 않았고 '옳은 것'같아서 시작한 사역이다.

그래서 사역과 삶의 현장에서 되뇌이는 고백은 '그리 하지 아니 하실지라도'라는 고백이다. 예배 처소를 빌려 정식으로 예배드리지 수개월이 지났다. 물론 생각과 계획대로 되는 것은 거의 없다. 개척교회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의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다. 감사할 따름이다.

여전히 많은 시도를 하고 있다.

과거에 품었던 이상적 교회의 가치들을 구현하기를 시도했으나, 역시 현실은 만만치 않았고, 때로는 좌절도 하고, 때로는 아프게 궤도를 수정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리고 이상과 현실이 조화롭지 못해 세밀한 그림들을 그려가고 있다.

비전과 기도제목

손성찬 목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목사이고 싶다. 그것이 교회 이긴 출판이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 받지 않는 일이라면 아무런 미련 없이 던져버릴 각오를 하고 있다. 그래서 손목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고 만남이 되고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나아가 손목사는 자신이 개발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손목사는 개척의 과정 속에서 손목사 자신이 목사가 되어감을 실감한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군종목사로 보낸 5년이나 부목사로 보낸 또 5년의 세월보다 담임 목사로 보낸 수개월이 훨씬 더 자신을 성장시킨 것 같다. 그래서 힘들지만 담임 목사로 사는 세월이 아깝지도 않고 개척의 결단이 후회스럽지도 않다. 여하간 목사가 성장해야 한다고 믿고 계속 기도한다.

손성찬 목사는 녹록치 않은 목회와 삶의 현실 속에서 꿈과 희망을 노래한다. 늘 하나님이 주실 더 좋은 축복을 기대하며 힘차게 전진한다. 이런 손목사의 삶과 사역에 언제나 응원과 격려를 보내지만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는 아내 김영진 사모가 있어서 늘 감사하고 든든하다. 손목사는 자신과 가정,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이뤄 가실 하나님나라를 믿음으로 기대한다.

강태광 편집위원



마동환 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추수감사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 (시편 104:1)

Attorneys
David Marh
Simon Langer
Frederick Alschuler
Gordon Turner
Nicholas Valmes
Walter Roberts
Douglas Villinger

이민법

낯선 땅에서 안정된 신분과 안정된 삶의 정착의 중요성은 언급할 필요도 없을것입니다. 마변호사그룹에서는 그러한 중요성을 심분 새겨서 가족의 일과 같이 모든 신분변경 및 이민케이스를 꼼꼼함과, 정성과, 넓은 시야를 갖고 대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의뢰인들께 만족한 결과를 드린 것이 저희 마변호사그룹의 기쁨이요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상법

상법의 전반적인 분야 (비즈니스, 부동산법, 세관법, 운송법, 국제법, 특허법)에 걸쳐 오랜기간 그 실력을 인정 받아 온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분의 법적문제에 의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와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그 어느 분야 보다도 상법에서는 지략과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 합니다. 지피지기가 이루어 지려면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긴밀한 대화와 그로 인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상담은 꼭 변호사와 하십시오!
모든 상담은 절대 비밀을 보장합니다.
무료상담 / 이메일 예약 환영



www.marhlaw.com

의뢰인의 원하는 것은 물론 필요한 것을 파악하는 것이 변호의 핵심이라는 것을 늘 염두하고 있습니다. 참된 변호란 의뢰인의 처한 상황과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합니다. 불필요한 소송은 때로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이해상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근절되어야 합니다.

마변호사그룹의 오랜 경험은 물론 실력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문제의 핵심 이슈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용되는 법에 관한 해박한 지식은 물론, 그 법을 적용함에 있어 지혜롭고 때론 창의력을 갖춘것이 마변호사그룹의 진정한 실력이라 하겠습니다. 이 실력은 의뢰인을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무기입니다.

가장 큰 정성은 의뢰인의 문제를 내 것처럼 생각하는 것일것입니다. 마변호사그룹은 모든일을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뢰인과 오랜기간 귀한 관계를 이어온 것도, 정성어린 마음의 결과라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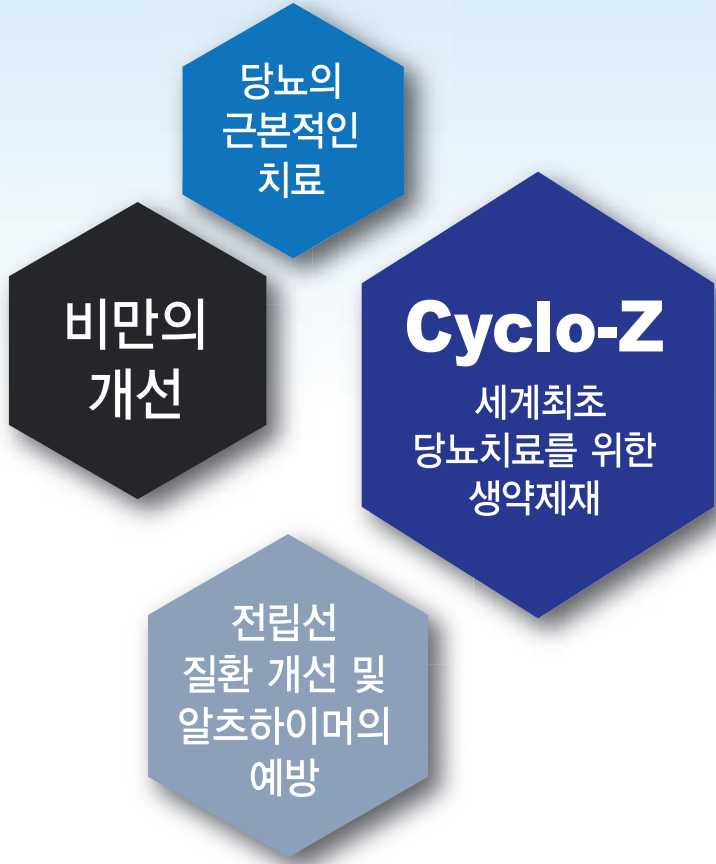
마변호사그룹에서는 결과에 대한 책임은 물론 백은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의뢰인과의 대화를 중요시 생각합니다. 진화, 이메일, 미팅을 통해 어느때든지 마변호사그룹은 의뢰인과의 대화 창구를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진정한 기쁨과 긍지는 의뢰인으로부터 얻는 신뢰입니다. 한번 한번 의뢰인과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기에 신뢰는 저희 마변호사그룹의 밑거름이요 최종 목표입니다. 진정한 신뢰 없이 친분이 없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tel. 213. 487.9190 fax. 213.487.9484 email. marhlaw@yahoo.com 3325 Wilshire Blvd., Suite 1350, Los Angeles, CA 90010

혈당수치가 내려가면 행복지수가 올라갑니다

식후 혈당 억제를 도와 혈당 걱정 없는 인생, 이제 **프로지**로 활짝 웃으세요.



프로지 PRO-Z

혈당수치 조절 및 혈당관리의 시작
나이와 상관 없이 빠르게 좋습니다.

당뇨병 환자 10명 중 3명은 자신이 당뇨병 환자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연령대별 당뇨병	30~44세	45~64세	65세 이상
환자 인지율	54.4%	73.2%	81.3%

특히, 30~44세의 젊은 당뇨병 환자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환자가 당뇨병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일본의 전국 약사 1,000명에게 당뇨병 신지식을 가르치고 있는 가사하라 도모코 약사의 저서 "당뇨병, 약을 버리고 아연으로 끝내라" 에서 미네랄의 하나인 '아연'에 당뇨병 치료의 열쇠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당뇨병만으로는 당뇨병이 낫지 않는다. 우리가 먹은 음식은 체내에서 대사를 거쳐 에너지로 변한다. 그 에너지의 재료가 되는 물질을 3대 영양소(탄수화물·지방·단백질)라고 하며, 이 영양소들이 에너지로 바뀌는 작용을 돕는 물질이 비타민과 철, 아연, 마그네슘 등의 미네랄이다. 대사를 촉진하는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하면 애써 섭취한 3대 영양소가 에너지로 바뀌지 못하고 체내에 남아돌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혈액 속에서 벌어지면 고혈당·고지혈증이 되고, 지방세포에 축적되면 비만으로 이어져 혈당이 올라가는 사태를 일으킨다. 이것이 당뇨병의 원인 중 하나다.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해서 고혈당이 되었다면 당뇨약을 먹거나 식사량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게 당연하다.
- 아연이 인슐린 작용을 돕는다. 당뇨병 환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꾸준히 약을 먹어 혈당을 낮추어도 당뇨병이 완치되지 않는 것이다. 인슐린 주사도 맞으면 맞을수록 동맥경화가 진행되고 해서 마음이 편치 않다. 인슐린은 혈액 중의 포도당을 세포에 들여보내서 높아진 혈당을 낮추는 작용을 하는 유일한 호르몬이다. 인슐린이 작용하지 않으면 체내 세포 대부분은 혈액으로부터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끌어들이지 못한다. 생명을 유지하는 중요한 작용을 인슐린이 하는 것이다. 다행인 점은, 인슐린이 적절히 작용하도록 돕는 영양소가 있다는 사실이다. 바로 아연이다. 아연은 뼈의 신진대사를 비롯해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미네랄이다. 간에서 쓸개즙을 만들어 내보내는 통로인 쓸개관에 필요한 효소와 공팔에서 혈압을 조절하는 효소가 기능을 발휘할 때 인슐린이 필요한데, 이러한 인슐린의 작용에 아연이 꼭 필요하다. 아연이 부족하면 혈당 조절 기능이 나빠지고, 합병증의 위험성이 커지며, 빈혈과 식욕부진, 미각장애, 불면증에 걸리거나 활력이 솟지 않는 등 크고 작은 증상이 시달린다.

아연은?

체내에 소량 존재하지만 생체내 여러 효소의 구성성분이 되고, 핵산의 합성이나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관여하는 필수적인 미량 영양소입니다.

당신의 체내 아연(Zn)은 제 기능을 다하고 있나요?

우리 몸의 필수 영양소 아연(Zn)은 당뇨와 같은 대사질환 및 특정상황에 노출된 분들에게 체내흡수가 어렵고 흡수가 되더라도 짧은 시간 안에 유실되어 제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프로지의 특별함은 아연(Zn)의 흡수력과 지속력

송문기 박사의 세계적 특허 Cyclo-z 관련 기술이 적용되어 귀하의 체내 아연(Zn) 흡수력과 지속력이 혁신적으로 증가됩니다. 이제 활발한 아연대사(Zinc Metabolism)가 가져다 주는 변화를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상실험이 입증하는 프로지의 효능!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 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체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아시나요?

당뇨 치료, 당뇨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첫걸음

당화혈색소(HbA1c) 1% 줄이기에서 시작됩니다

혈당수치를 조절한다고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화혈색소를 1%만 줄여도

43% (하지절단)
37% (미세혈관합병증등이) 줄어듭니다

당화혈색소(HbA1c) 조절목표는 6.5%

당화혈색소 수치는 당뇨 합병증 발생을 반영하는 가장 좋은 지표입니다. 당화혈색소를 정상으로 유지하도록 혈당을 철저히 조절하면 할수록 합병증 발생은 줄어듭니다.

43%	37%	21%	14%	12%
하지절단 또는 말초혈관 질환	미세혈관 합병증	당뇨병 관련사망	심장마비	뇌졸중

당화혈색소 수치개선은 일시적 혈당조절이 아닌 신체기능의 회복에서 수치가 나타납니다.

송문기 박사, 그는 누구인가?

- * 국가대표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
- * 40년간 당뇨병, 비만 그리고 난치병 연구
- * UCLA학대 생화학 분야 연구교수
- * 미 연방재향군인병원 개발센터 수석 연구원등

송문기 박사의 Cyclo-Z

인슐린감도개선을 통한 당뇨치료제 신약후보물질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 미국 정부기관(V.A. Hospital)에서 투자지원, FDA승인 및 임상 2a를 성공적으로 진행중에 있으며 신치료제 상용화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송문기 박사는 이러한 업적과 인류사회에 미치는 공로를 인정받아 세계 3대 인명사전중 하나인 Marquis Who's Who에 등재되는 쾌거를 이루어 냈습니다.

1병 \$69+Tax
3병 \$180+Tax
6병 \$350+Tax

핵심은 아연의 흡수
(CHP 특허물질 아연의 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